

Sulwhasoo

VOL.72 MARCH/APRIL 2016

Sulwhasoo

VOL.72

Sulwhasoo

MARCH/APRIL 2016





가화家花 / 제미영

캔버스에 바느질 클라주, 비즈, 52.5×73cm, 2015

멀리서 보면 그림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감탄을 자아내는 작가 제미영의 작품은 조각 천을 물감 삼아, 바늘을 붓 삼아 만든 수작업의 절정이라 할 수 있다. 보이지 않는 형상으로 이어 내려온 전통의 감성이 동양화를 전공한 작가에게 어찌면 필연처럼 와 닿을 터. 작은 천 조각들을 자르고 캔버스에 꿰매는 작업은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 작가가 가지고 있는 감성과 직관, 그리고 특별한 통찰력과의 콜라베이션으로 전통과의 색다른 소통의 창구를 만들어낸다. 바늘땀이 보이도록 꿰매는 감칠질과 색실을 이용한 장식, 조각보를 자르고 다시 연결하는 해체와 반복의 과정 끝에 탄생한 풍경은 현실 세계를 스케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작가의 손을 거쳐 독특한 공간으로 완성되었다. 제미영은 작가 노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주변의 일상적인 풍경을 시각과 촉각의 복수 감각을 동원하여 새로운 리얼리티의 세계로 보여주고자 한다. 조각조각 색채들의 조합으로 표현된 대상은 현실을 새롭고도 낯설게 직면시키고, 이차원적 평면성을 더 풍부한 색채 풍경으로 만들어낸다. 전통 조각보 방식과 회화의 융합에 일상의 담담한 풍경을 나만의 색채 언어로 추구하고 본다.” 에디터 권자에

The work of artist Miyoung Je looks like a painting from afar; however, upon closer inspection, you are slowly filled with admiration as you gaze on it. The climax of the artist's handwork substitutes watercolor with fabric patches and brushes with needles. The traditional sentiments that have been achieved through invisible shapes might be the destiny for this artist who majored in Oriental Painting. The art of cutting and sewing small pieces of fabric onto the canvas collaborates with the sentiments, intuition, and special insights of a young contemporary artist to open up a unique window of communication involving tradition. The sceneries that are created with the hemming stitch, wherein the stitches are exposed, the decorative colored threads, and the repetitive process of cutting and connecting the patches have become unique spaces with the touch of the artists and their depiction of the real world.

“I intend to use multiple senses of vision and touch to show the mundane sceneries as new worlds of reality,” says Miyoung Je in her artist's note. “The subjects are expressed through the patchwork of colors, which make the reality new and strange, and then the 2D planes are converted into sceneries that are rich in color. I pursue through my unique language of colors the combination of traditional patchwork and painting with the ordinary sceneries of everyday life.”

Sulwhasoo

MARCH/APRIL 2016

진정한 아름다움의 가치를 실현하는 글로벌 홀리스틱 뷰티의 정수, 설화수

설화수는 순행하는 자연의 이치로부터 지혜를 얻고, 자연에서 나고 자란 진귀한 원료로 참된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 내·외면의 균형 잡힌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설화수. 수천 년 아시아의 지혜가 담긴 전설적인 한방 성분을 현대 피부과학으로 재창조하여 피부 안팎을 케어하는 궁극의 피부 솔루션을 제공하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주는 홀리스틱 뷰티를 선사한다. 삼천가지 원료에서 찾아낸 설화수 고유의 원료인 '자음단'과 설화수만의 독보적인 효능을 가능케 한 한국의 우수 원료 고려인삼 그리고 첨단 피부과학을 통해, 설화수는 한국을 넘어 세계에 홀리스틱 뷰티의 가치를 전파하고 있다. 2016년 현재, 설화수는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싱가포르, 홍콩,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베트남, 미국, 캐나다까지 전 세계 11여 개국에 진출, 아시안 뷰티 크리에이터로 자리 잡고 있다.

Sulwhasoo gains wisdom from the laws of nature and creates true beauty with precious ingredients grown in nature. It presents the balanced beauty of inside and out. The legendary Asian medicinal herbs that distill thousands of years of Asian wisdom are recreated with modern skincare science to provide the ultimate skincare solution, and create holistic beauty of harmony and balance. Sulwhasoo's original 'JAUM Balancing Complex™', found from about 3,000 ingredients, coupled with Korea's outstanding ginseng that enables Sulwhasoo's unmatched efficacies and advanced skin science, spreads the value of holistic beauty throughout the world. As of 2016, Sulwhasoo conducts business in 11 countries, including Korea, China, Singapore, Hong Kong, Thailand, Indonesia, Malaysia, Taiwan, Vietnam, U.S. and Canada, as the Asian beauty creator.



Sulwhasoo

VOL.72 MARCH/APRIL 2016



펼 치 다

〈Sulwhasoo〉는 설화수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주)아모레퍼시픽에서 연 6회 발행하는
고품격 VIP 매거진입니다.

발행인·서경배 편집인·류재현
발행처 (주)아모레퍼시픽·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00 시그니처 빌딩
기획 및 제작·설화수 MC 팀 문의·고객상담팀(080-023-5454, 수신자 요금 부담)
편집, 디자인·기아 미디어·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81길 6 기아빌딩 02)317-4921
편집·권지애, 윤연숙 디자인·조윤희
발행일·2016년 3월 2일(통권 제72호)
사진·GURU visual 02)747-6118
시스템 출력·사빛그래픽
인쇄·(주)태산인쇄 02)853-6574 www.inpack.co.kr 인쇄인·서명현

〈Sulwhasoo〉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Sulwhasoo〉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 08 품격 있는 삶
심신을 아름답게 가꾸던 옛사람들의 목욕
- 12 피부 섬기기
피부 속을 밝혀 주는 백삼으로
어린 피부 빛을 가득 채우다
- 16 동서고금이 만나다
사람의 소리 닮은 국악기에 이끌려
- 22 新 공간을 보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작은 마을의 정취
- 28 건너다
뜨거운 열정으로 설화수의 기품을 받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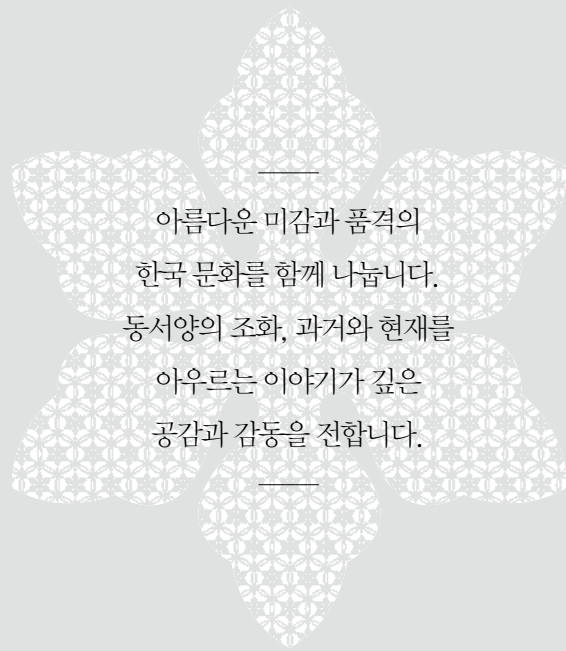
누 리 다

- 36 설화인
이토록 화사한 마음, 그리고 사람
- 44 어우러지다
그릇에 담긴 삶의 운치 한 조각
- 50 설화풍경
꽃이 가장 먼저 말을 건넵니다. 봄이 왔다고
- 54 설화보감
우리와 어우러지며 맛을 더한 서양 채소
- 60 아름다운 기행
복고와 모던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새로움, 부산 & 홍콩
- 66 설화수를 말하다
건고한 피부를 바탕으로 완성시킨
맑은 아름다움
- 71 설화수 뉴스
- 72 설화 리미티드
아름다움을 밝히는 지혜의 빛을 전하다

익 히 다

- 76 배움의 기쁨
꽃이라는 자연으로 만든 마음
- 80 한국의 멋
탐매探梅의 즐거움
- 82 설화애장
기억과 보존의 가치
- 84 읽다
공간에 새긴 찬란한 빛의 순간들
- 88 집 안 단장
초록빛으로 수놓은 공간 속에서 숨을 쉬다
- 90 몸 단장
한 알, 한 알 꿰어낸 우아함의 극치여라
- 92 설화 히스토리
연매출 1조 달성, 열정과 집념의 결실

- 94 문화 즐기기
- 96 프로덕트 맵
- 98 독자 선물



펼
치
다

심신을 아름답게 가꾸던 옛사람들의 목욕 Traditional bath for a beautiful body and mind

우리의 전통문화 속에서 목욕은 종종 종교적, 주술적 의식과 결합되곤 했다. 몸을 씻는 행위인 목욕이 심신을 깨끗이 닦고 마음을 경건히 하는 '목욕재계(沐浴齋戒)'로 확장된 건 신라 때의 일이다.

글 박경수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이승원

목욕재계를 계율로 삼는 불교가 전해지면서 그 풍습이 신라인들의 삶 속으로 깊이 파고들었다. 흥미로운 건, 한민족의 문헌에 기록된 첫 목욕의 주인공이 신라의 시조인 박혁거세와 왕비 알영 부인이 라는 점이다. 통일신라의 목욕 문화는 고려에 이르러 한층 더 대중화되었다. 송나라 사신 서긍의 <고려도경>에는 “고려인들은 하루 서너 차례 목욕을 하고 개성의 큰 강에서 남녀가 한데 어울려 목욕을 한다”라는 대목이 나온다. 당시 여인들은 목욕용 모시 치마를 입고 물속에 들어갔다고 전해진다. 질병 치료와 예방의학의 개념이 목욕에 도입된 것도 이 무렵이다. <고려사절요>에 따르면 고려의 임금들은 온천 행차를 즐겼고, 병든 신하에게 온천욕을 권장했다고 한다.

한반도의 목욕 문화는 백제가 일본에 불교를 전파할 때 함께 전해졌다. 고온다습하고 온천이 많은 일본에서 목욕 문화는 이후 한반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중화된다. 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때를 미는 우리와 달리 일본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물로 몸을 씻어낼 뿐 때를 밀지 않는다. 가정에서

Buddhism teaches you to cleanse your body, and this custom deeply affected the lives of the Shilla people. An interesting fact is the record of the first bath in the literature of the Korean people that was taken by King Park Hyeokgeose, the founder of Shilla, and Queen Aryeong. The bath culture of the Shilla Unification became more popular in the Goryeo Dynasty. GaoliTujing (GoryeoDogyeong) of Xu Jing, who was an envoy from the Song Dynasty of China, stated, “The people of Goryeo bathe 3-4 times a day, and the men and women gather at a big river in Gaeseong to bathe together.” The women at that time went in the water to bathe while wearing ramie skirts. The concept of treating and preventing diseases through bathing was also introduced around that time. According to “Goryeosajeolyo: Essentials of Goryeo History”, the kings of Goryeo enjoyed going to the hot springs and required the ill servants to take baths in the hot springs.

The bath culture of the Korean Peninsula spread to Japan when Baekje brought Buddhism to the country. Japan had a hot and humid climate, as well as many hot spring baths, so the bath culture



수더분한 라인이 매력적인 접시는 윤현앤즈, 당초문 향낭은 리움.

는 욕조에 더운물을 채운 뒤 가장부터 자녀들까지 온 가족이 차례로 들어간다.

조선 시대엔 유교의 영향으로 알몸을 노출하는 일이 금기시되어 왕족과 귀족들은 목욕용 옷을 걸친 채 몸을 씻었다. 대개는 함지박이나 대야를 이용한 '부분 목욕'이 전부였고, 전신욕은 특정한 날에만 하는 일종의 행사가 되었다. 삼짇날(3월 3일), 단오(5월 5일), 유뒸날(6월 15일), 칠석(7월 7일) 등은 조선의 명절인 동시에 온 백성이 물에 몸을 담그는 '목욕절'이기도 했다. 목욕할 때 약재나 향신료를 사용하는 풍습은 일찍이 고려 시대부터 꽃을 피웠다. 고려의 여인들은 피부를 희게 만들기 위해 복숭아 꽃물이나 난초 삶은 물을 사용했다고 한다. 조선 시대에도 식물의 잎과 줄기, 열매 등을 중탕하여 목욕물에 섞는 '미용탕'이 성행했는데, 인삼 잎을 달여 넣은 인삼탕과 찐 마늘을 목면망에 넣어 물에 담그고 식초를 섞는 마늘탕이 대표적이다. 단옷날엔 창포 잎과 뿌리를 삶은 물로 머리를 감고 목욕하는 풍습이 있었고, 몸에서 은은한 향내가 나게 하는 난탕은 혼례를 앞둔 신부들이 주로 애용했다고 한다. 과거에 비해 목욕이 뜸해진 시대라고는 해도, 고운 피부와 아름다운 향기를 추구하는 건 조선의 여인들 또한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미美와 향과 건강'으로 집약되는 욕실 아로마테라피는 결코 현대 여성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얘기다. S

became popular in a completely different way. In Korea, we scrub the body until it is completely clean from filth, but the people in Japan simply wash their bodies with water without any scrubbing. While in their homes, they fill the tub with hot water and everyone in the family take turns in going to the tub, starting with the head of the family.

In the Joseon Dynasty, exposing the body was considered a taboo because of the influence of Confucianism. As a result, the royal and noble people washed their bodies while in their bathing clothes. Most of the time, it was 'partial bathing', which involves using a pail or a bucket, and full-body bathing became a special event for certain occasions. Samjital (March 3), Dano (May 5), Yudutnal (June 15), and Chilseok (July 7) were holidays during the Joseon Dynasty when all commoners took full-body baths. The use of herbs or spices while bathing became popular in the Goryeo Dynasty. The women used peach blossom water or boiled orchid water in order to have fairer looking skin. 'Beauty baths', wherein plant leaves, stems, and fruits were double-boiled and mixed with bath water, were also popular in the Joseon Dynasty. The two most popular baths were the Ginseng Bath with brewed ginseng leaves and the Garlic Bath with steamed garlic in cotton pockets and vinegar. Bathing was not as popular as before, but the women of Joseon still longed to have fine-looking and beautifully scented skin. This means that the modern women are not the first to enjoy the bath-time aromatherapy for beauty, fragrance, and health.



크기와 모양이 다른 백자 향유는 모두 무인시대

피부 속을 밝혀 주는 백삼으로 어린 피부 빛을 가득 채우다 Replenish translucent inner-glow with White Ginseng

사라져버린 어린 피부 빛을 낼 수 있는 요소들을 되살려 주었을 때, 피부는 마침내 진정 맑고 투명하게 빛날 수 있다. 피부 속에서부터 어린 피부 빛을 가득 채우듯 시작된 볼륨 브라이트닝, 설화수가 새로운 화이트닝의 기준을 제시한다.

에디터 권지에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부로 드 플로리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이승원 일러스트 임성구

단순히 색에만 치중한 하얀 피부는 거친 질감으로 안색을 더욱 칙칙해 보이게 한다.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화이트닝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색감을 내는 데에만 치중한 화이트닝을 경험했기 때문. 설화수 자정미백에센스는 색감과 질감 모두를 만족시키는 진정한 볼륨 브라이트닝으로 새로운 화이트닝의 세계로 인도한다. 피부 위로 드리워진 그늘을 걷어내며 여덟 번째 새로운 진화를 통해 미백 명품으로 거듭난 자정미백에센스의 핵심 성분은 바로 백삼이다. 백삼에서 추출해낸 백삼사포닌은 설화수의 독자적인 특허 미백 성분이자 세계 최초 인삼 유래 미백 성분으로 탄력감의 증진과 멜라닌 억제를 관장하며, 피부에 맑고 투명한 어린 피부 빛을 채워 안색을 밝혀준다. 또한 기존 백삼다당체 대비 보습 효능이 높은 성분을 2.5배 순도로 농축하여 물을 머금은 듯 피부를 촉촉하게 적셔주는 백삼농축다당체는 내외부 유해 환경으로 인해 칙칙해진 피부 곳곳에 섬세하고 빠르게 스며들며 흔들림 없이 빛나는 피부로 만들어준다.

If you have pale-looking skin, its rough texture can make your complexion appear duller. Most women are not satisfied with their brightening products because they have only tried formulas that solely focus on their skin tones. Sulwhasoo's Snowise Brightening Serum invites you to a whole new world of skin brightening with its genuine Volume Brightening formula that focuses on both the skin tone and texture. White ginseng is the main ingredient of Snowise Brightening Serum, which is the 8th version of the premium brightening formula that has been formulated to effectively lighten your skin tone. White ginseng saponin is Sulwhasoo's original patented brightening formula and the world's first ginseng-based brightening substance. It enhances skin resilience and inhibits melanin production in order to replenish your skin with a clear and transparent youthful glow and brighter complexion. In addition, white ginseng polysaccharides, which are 2.5 times concentrated in purity for faster skin hydration, absorbs into the skin where it has been dulled by various internal and external aggressors for an effective skin brightening.





각기 다른 크기의 백자 접시는
이기조 작가 작품으로 조은숙
아트앤라이프스타일갤러리,
10각합은 김덕호 작가 작품으로
LVS 크래프트

자정미백에센스

풍부한 수분을 담고 있어
피어리는 순간 품고 있던 수분감이
시원하게 퍼지며 피부 곳곳에
브라이트닝 유효 성분을 고루
전달한다. 50ml.

자정스크럽젤

마일드한 파우더와 끈직한
젤 포몰리가 각질과 피부 노폐물을
부드럽게 정리해 맑고 보들보들한
피부를 선사한다. 100ml.

제 아무리 이목구비가 또렷하다 한들, 그 바탕이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 깨끗하고 촉촉한 피부를 위해서는 각질 관리가 최우선일 것. 묵은 각질로 인해 칙칙해진 피부에 자정스크럽젤로 매일 2차 세안하는 습관을 더한다. 친환경 백삼과 호두 껍질을 곱게 갈아 넣은 자정스크럽젤은 안색을 칙칙하게 하는 미세한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밀어낸다. 동시에 끈직한 꿀 한방 보습 복합체가 피부에 달라붙은 노폐물을 흡착하고 피부 수분 밸런스를 조절해 세안 후에도 푸석하거나 당기지 않는 촉촉하고 찰진 피부 상태로 만들어준다. 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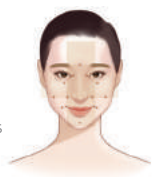
Clear-looking skin will always enhance a person's beauty regardless of how attractive they are. Exfoliation is required for a clean and moisturized skin. Exfoliate as you cleanse your face every day with Snowwise Brightening Exfoliating Gel. Formulated with finely ground eco-friendly white ginseng and walnut shells, Snowwise Brightening Exfoliating Gel scrubs dead skin cells that dull the complexion. The rich honey hydrating complex attaches to the impurities and controls the moisture balance, thereby leaving your skin moisturized and densified without roughness or tightness after cleansing.

**볼륨 브라이트닝
마사지법
Volume Brightening
Massage**

볼륨 브라이트닝 마사지란?

엄지 손가락을 사용해 얼굴 중심에 집중된 피부 그늘화 현상의 원인인 탄력 저하와 칙칙한 안색을 교정해 맑고 투명한 피부로 개선해주는 마사지

What is Volume Brightening Massage?
A massage for a clear and transparent complexion that uses the first nodes of your thumbs to correct skin resilience, dullness, and darkening at the center of the face.



Step 1 이마 부위

미간 중앙 부위를 지그시 눌러준 후
이어서 미간 중앙에서 관자놀이까지
밀어준다.

Forehead area Gently press the point between the eyebrows, and push toward the temples.



Step 2 눈가

눈 앞머리 부위를 지그시 눌러준 후
눈 앞머리 → 눈 전체 → 귀 앞부분의
순서로 밀어준다.

Eye area Gently press the inner ends of the eyes, and push around the eyes toward the top of the ears.



Step 3 볼 부위

콧방울 옆 부위를 지그시 눌러준 후
콧방울 → 광대 아래 부위 → 귀 중앙의
순서로 밀어준다.

Cheek area Gently press the points next to the nostrils, on the nostrils, beneath the cheekbones, and on the center of the ears.





사람의 소리 닮은 국악기에 이끌려

Hilary Vanessa Finchum Sung

힐러리 바네사 핀참성

자신이 한국을 사랑하는 '파란 눈의 외국인' 정도로 인식되길 거부하는 서울대 국악과 힐러리 교수.
 사춘기 딸과 쌍둥이 아들들을 한국 학교에 보내고, 한국 엄마와 동일한 걱정을 하면서까지
 그는 대체 왜 다른 나라 음악이 아닌 국악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았던 걸까? 학자로서 또 교수로서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으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았다.

글과 진행 최태원 사진 전제호





힐러리 교수의 연구실 서가에는 국악 연구서가 가득하다.

어떤 이유로 타국에서 그들의 민속음악을 연구하게 되었는지요?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다 음악과 인류학을 연계한 인류음악학(Ethnomusicology)을 전공하게 되었고, 서점에서 국악 CD 세 장을 구해 들었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2009년에 서울대 교수로 오기 전인, 98년부터 거의 한국에서 살다시피 해서 낯섦은 없었어요. 단지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될 아이들이 걱정이었죠. 세상의 모든 음악을 좋아하고 그 중에 국악이 연구의 대상이 된 것이예요.

처음 국악을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요? 중국 음악은 너무 활발하고 높은 음 때문에 감동을 느끼지 못했어요. 일본의 궁중음악은 음과 음 사이를 중시하는 정적이고 평화로운 음악이란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국악 역시 유사할 거라 생각했었죠. 그런데 듣는 순간, 많이 달랐어요. 우선 피리와 아쟁 그리고 해금 같은 악기의 음색이 사람의 음성을 닮았다는 느낌이 강했고, 탁하면 아름다움 그 소리들이 살아 숨 쉰다는 생각이 들어 끌리게 되었죠.

그런 매력에도 불구하고, 국악이 대중과 멀어진 이유는 뭘까요? 음악의 문제가 아니라 음악을 수용하는 사회가 변했기 때문이죠. 해방 이후 급속도로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뤄지면서, 국악을 즐기던 대중의 삶에 더 이상 개입하기 힘들어진 겁니다. 여기에 무형문화재 같은 시스템과 대학의 커리큘럼이 다양한 장르의 퇴화를 가져온 측면도 있어요. 예를 들어 진도에서조차 육자배기와 아리랑이 아니면 소리로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3년 전부터 진도의 '여성 소리'를 현장 취재하고 있는데, 마을 전수관에서 할머니들께 '시집살이' 타령을 청하면, "노래도 아닌 걸 뭣 하러"란 반응이 돌아와요. 60년대부터 가사와 음이 규격화되면서, 국악의 무정형성이 무시되고 있는 거죠. 자연스럽지 않은 현상입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던 90년대만 해도 국악의 대중성 회복을 위해 창작국악이 유행이었고 저 역시 그런 쪽에 관심을 두었는데, 지금

Why did you decide to study a traditional music of a foreign country? When I decided to go to graduate school, I chose to major in ethnomusicology, which combines music with anthropology. One day, I happened to listen to three Gugak CDs at a bookstore, and they brought me here. I had spent a long time in South Korea, from 1998, so it did not feel foreign to me when I had to teach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2009. I was just worried about the confusion that my students would experience. I love all kinds of music in the world, and Gugak just happens to be my field of study.

When you were first exposed to Gugak, how did you feel about it? Chinese music to me was too active and high-pitched. I had thought that the palace music of Japan was static and peaceful, with much importance placed between notes, so I had expected something similar from Gugak, but when I listened to it, it was actually very different. It gave me a strong feeling that the sounds of the instruments, such as the piri, ajaeng, and haegeum, were very similar to human voices.

Why do you think Gugak has become distant from the public despite its charm? It's not the music but the society that accepts the music has changed. With the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that quickly swept the country after its liberation, Gugak could no longer be a part of the lives of most people. In addition, other factors, such as the intangible cultural assets and the college curricula, have degraded various music genres. For example, even Jindo does not accept any sound as Gugak besides "Yukjabaegi" and "Arirang". I have captured the "sounds of women's voices" in

은 교육과 작곡 그리고 마케팅 측면에서 국악의 21세기적 변화와 방향이란 주제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진도에서 취재를 하신다니,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엔 여성 소리에 관심을 두었죠. 여성의 삶을 다룬 소리를 찾고 싶었는데, 고령의 할머니들과 만나면서 이전 세대를 살아낸 한국 여성의 삶을 이해하는 과정이 되었어요. 지난해 안식년도 거의 진도에서 보냈는데, 성과도 많았지만 아쉬움도 적지 않아요. 가령 고령화로 인해 대보름 행사의 절반 가량이 무더기로 취소되고, 무형문화재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만가를 하실 분들이 없어 제자들이 아니었으면 노제를 못 치를 뻔했죠. 진도의 장례는 단지 슬픈 일이 아니라 일종의 축제인데, 이젠 일반적인 장례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오랜 세월 기능해온 문화재에 대한 시스템 재편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9년부터 강단에 섰는데, 학생들에게 달라진 점이 있나요? 학생들보다 제가 많이 달라졌죠. 처음엔 미국식 교수법을 그대로 적용했더니 학생들과 가까워질 수 없었어요. 학생들이 먼저 질문을 하지도 않고, 질문을 할까봐 시선을 피했으니까요. 미국보다 훨씬 소극적인 학생들에 맞춰 저의 교육 스타일을 바꿨죠. 물론 외국인 교수를 통해 기존의 한국적 교육 스타일을 바꾸려는 학교측의 목적은 이해하지만 일종의 타협점을 찾은 거죠.

Jindo since three years ago. When I ask the old ladies at the village training centers to sing "Sijipsari Taryeong," they say, "What for? It's not even a song." As the lyrics and melodies have become standardized since the '60s, the formlessness of Gugak has been looked down on. This is not natural. When I first came to South Korea in the '90s, creative Gugak was popular thanks to the efforts to bring Gugak closer to the public, and I became interested in it. At present, I am focusing on the 21st-century changes and directions of Gugak in light of education, composing, and marketing.

You just said you are capturing the sounds in Jindo. Can you elaborate on the purpose of that study? At first, I was interested in the sounds of women. I wanted to find the sounds in womens' lives, but ever since I met many older ladies, it has become a process of understanding the lives of the Korean women who have lived since the last generation. I spent almost my entire sabbatical last year in Jindo. I had many accomplishments, but I also have many regrets. At this one time, about half of the Daeboreum events were cancelled because of the agedness of the community, and there was no one who could sing "Manga" when one of the intangible assets passed away. If it wasn't for his pupils, we might not have been able to sing at his funeral. It used to be that the funerals in Jindo were considered not just mournful events but festivals. Now they are becoming nothing special compared to other funerals. I believe that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system and to develop alternatives for the cultural heritages that have fulfilled certain functions for a long time.

이론을 가르치시지만, 국악기 연주를 즐기신다고 들었는데? 모든 국악기를 좋아하지만, 특히 아기 울음소리를 닮은 해금을 좋아해요. 부담을 드릴 것 같아 동료 교수님들께 배우진 않고, 학교 밖에서 전문가들에게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3월에 연주단과 함께 미국 보스턴에 갈 예정인데, 사회도 보고 연주와 강의도 할 생각입니다. 국악에 호기심을 갖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음원에서 들리던 소리를 내는 악기가 이거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고향이 미국 컨트리 뮤직의 메카인 내슈빌이라고 들었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음악의 도시죠. 요즘은 너무 LA나 라스베이거스처럼 상업적 측면이 부각되는 거 아닌가 싶어 아쉽지만, 여전히 카페나 클럽에서 누구나 연주를 즐기는 생동감 넘치는 문화가 있는 곳입니다. 내슈빌에서는 파티란 게, 각자가 악기를 들고 친구집에 모여 잼 연주를 하는 거예요. SNS를 통해 고향 친구들이 잼을 했다는 소식을 접하면, 문득 가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진행하실 건가요? 저의 장점이자 역할은 어려서부터 국악을 전공한 이들과 다른 관점과 방식으로 국악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일 겁니다. 또 이지영 교수님의 <작곡가를 위한 현대가야금 기보법> 처럼 중요한 저술의 영어 번역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있죠. 물론 계 연구 결과도 그런 장점을 살려 반드시 영어본과 한국어본을 동시에 출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취재한 다양하고 소중한 자료를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공개된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작업도 꼭 이루고자 합니다. S

You teach theories, but we heard that you enjoy performing using Gugak instruments. I love all the Gugak instruments, but my favorite is haegeum, which sounds like a baby once it is played. I don't want to bother my fellow professors by asking them to teach me, so I'm getting lessons from professional performers outside the school. I am planning to visit Boston with a team of performers in March. My job will be to host the event, to perform, and to deliver a lecture. The purpose of this event is to show the Americans, who are curious about Gugak, that “these are the instruments that make the sounds you have been hearing.”

We heard that you're from Nashville, the mecca of country music. It's a city of music, with a long history. We're sad that it's used too much for commercial purposes, like LA or Las Vegas, but it's still a lively place where anyone can enjoy delivering musical performances at a cafe or a club. In Nashville, partying means bringing your musical instrument and gathering with your friends at a friend's house for a jamming session. I sometimes miss my home when I read about my pals' jamming session on social media.

What are your plans for the future? My strength is that I can approach Gugak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compared to those who have been studying it since they were young. I can also translate some major publications into English, such as Professor Ji Young Lee's <Modern Gayageum Notation for Composers>. I'm planning to publish my findings both in English and in Korean, of course. I'm also going to build an open archive where anyone can share and reach my research materials.



국악기 연주를 즐기는 힐러리 교수는 항상 국악기와 함께 하는 삶을 살고 있다. 연구실에는 국악기와 악보 그리고 한국적인 오브제들이 자리하고 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작은 마을의 정취

The sentient small
village where the past
and present coexist

배다리역사문화마을의 곳곳에서는
주민들의 삶이 그려진 벽화가
정겹게 사람들을 맞이한다.

근대 건축물과 고층 아파트가 나란히 자리하고,
반세기가 넘는 세월을 살아온 한채방 거리가 있는가 하면
일록달록 벽화로 단장한 골목도 있다. 인천의 근현대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배다리역사문화마을에서는 옛 추억과
현재를 살아가는 모습이 느끼게 교차하고 있다.
에디터 윤연숙 사진 문성진 도움 주신 곳 아벨서점, 스페이스빔



과거 밀물 때면 바닷물이 들어와 배가 닿았던 동네라 이름 붙여진 배다리마을은 인천 동구 금창동 일대를 말한다. 그 옛날 문물이 드나들던 곳인 만큼 배다리 일대에는 큰 규모의 시장이 형성되었고 성냥, 간장, 고무신 공장 등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 늘 붐비던 곳이다. 특히 1950년대에는 40여 개에 달하는 헌책방이 밀집하여, 전쟁 이후 빈곤하던 시절 값이 싼 헌책을 구하기 위해 학생과 지식인들이 몰려들었다. 헌책방으로 북적이던 거리에는 현재 집현전, 대창서림, 한미서점, 삼성서림, 아벨서점 등 다섯 곳만이 남았지만 꾸준히 마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헌책방에 들어서면 천장까지 높이 쌓인 낡고 손때 묻은 헌책과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나무 기둥, 삐걱거리는 계단 등이 그때 그 시절의 아련하고 정다운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배다리마을이 배다리역사문화마을로 이름 붙여진 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 한때 산업도로 건설과 부동산 개발로 인해 마을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것. 이에 마을 주민들과 문화예술인들이 힘을 모아 배다리마을을 지키는 것은 물론, 함께 가꾸기 시작했다.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마을 가꾸기는 벽화 그리기, 역사 탐방, 헌책방거리 보존, 산업도로 예정 부지 텃밭 가꾸기, 배다리 문화 축제, 문화공간 마련 등을 통해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었고, 자연스럽게 배다리마을은 기존의 근현대 역사 문화와 문화예술 공간이 어우러진 곳이 됐다.

헌책방거리에서 벽화골목으로 향하다 보면 커다란 덩치의 투박하게 생긴 철제 로봇을 맞닥뜨리게 된다. 옛 양조장 건물을 약간의 리모델링을 거쳐 활용한 대안 예술공간이자 도시 공동체 커뮤니티

- 1 대안 예술공간 스페이스비의 마스크트
- 2 옛 양조장 건물의 모습이 남아 있는 스페이스비의 내부
- 3 창영초등학교로 향하는 길의 벽화 풍경
- 4 1973년에 문을 연 헌책방 아벨서점에서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났다
- 5 나뭇가게 '돌고'에서는 돈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글 쪽지를 남기는 것으로 물물교환이 이뤄진다.

Baedari Village, so aptly named as it was used as a dock during a high tide in the past, refers to the Gumchang-dong area of Dong-gu, Incheon. It was also the place where the modern foreign ships were docked. Baedari and its vicinity had large markets and huge crowds, wherein many people are working in the nearby match, soy sauce, and rubber shoe factories. In the 1950s, nearly 40 used book stores were clustered here in order to attract students and scholars who could only afford used books due to poverty right after the Korean War. The streets filled with used book stores currently have only five of those stores—Jiphyeonjeon, Daechangseorim, Hanmiseojeom, Samseongseorim, and Abelseojeom. However, they are still carrying on the history of the village. There is a special story behind Baedari Village's naming as Baedari Village of History and Culture. The village almost became nonexistent because of the new industrial roads and real estate development. The villagers and culture/art masters gathered to protect and beautify the village. In 2007, the village beautification project began in order to bring back vitality to the village with murals and historical expeditions, as well as preserve the used book streets, cultivate plants in properties assigned for industrial roads, host the Baedari Cultural Festival, and plan cultural spaces. Baedari Village gradually became a unique place that harmonizes the historical culture of modern times and the contemporary spaces of culture and arts. If you face toward the mural alley from

‘스페이스빔’의 입구를 지키고 있는 조형물이다. 스페이스빔은 배다리마을의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의 문맥을 고려한 다각적 활동 속에서 바람직한 도시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며 앞장서고 있다. 1층은 전시 공간, 2층은 사무실을 겸한 카페로, 1층에는 배다리마을을 배경으로 진행된 다양한 미술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상설 전시되어 있다.

스페이스빔을 나와 도원역 방향으로 걷다 보면 철로 옆에 2012년 동구청에서 조성한 ‘깊고 싶은 거리’가 나타난다. 오른쪽에는 구청에서 정비해놓은 작품이 길 따라 늘어서 있고, 왼쪽에는 1970~80년대 모습이 남아 있는 아기자기한 가옥이 늘어서 있는데, 담벼락에 그려진 정겨운 벽화를 찾아보는 재미가 있다. 벽화들은 ‘우각로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그려진 작품들로 배다리마을의 역사와 주민들의 삶이 녹아들어 있다. 벽화를 감상하며 도원역까지 걸다가 우각로 쪽으로 되돌아오면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세 곳을 만날 수 있다. 여성 선교사들의 숙소로 쓰였던 인천기독교사회복지관, 한국 최초의 서구식 초등학교인 영화초등학교, 인천 최초의 공립 보통학교인 창영초등학교이다. 삼각형의 지붕과 아치형 창문, 붉은 벽돌로 지어진 이국적인 근대 건축물들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건재하며 배다리마을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실감하게 한다. 특히 1907년 개교한 창영초등학교는 1919년 3.1운동 당시 인천 만세운동의 진원지로 민족 정신과 역사적인 힘이 서려 있는 곳이다.

오래된 마을이 지닌 의미와 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진다. 이제 몇 남지 않은 정겨운 구도심의 풍경이 세상의 빠른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보존될 수 있기를 바란다. S

the used book streets, you will see a coarsely made gigantic steel robot. This is an installation that guards the entrance to the ‘Space Beam,’ which is an alternative art space and urban community building completed by remodeling a former brewery. The Space Beam always serves a critical role in the discussion of the current issues of Baedari Village and the creation of a sound urban community through multifaceted activities based on the local context.

As you leave the Space Beam and walk toward Dowon Station, you will arrive at the ‘Walkers’ Street’, which was created by the Dong-gu Office in 2012 along the railroad. To the right, you can see the artworks arranged by the Dong-gu Office, and to the left, you can see the cute little houses from the 1970s-80s. It is fun to look at the friendly murals on the walls. Walk toward Dowon Station while appreciating the murals, and turn back toward Ugak-ro. There are thre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of Incheon, namely, Incheon Christian Social Welfare Center, which was once a dormitory for female missionaries, Younghwa Elementary School, which was Korea’s first western-style elementary school, and Changyeong Elementary School, which was Incheon’s first public school. The exotic modern buildings with triangular roofs, arch windows, and red bricks are still standing strong after 100 years, as they represent the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 of Baedari Village. The essence and significance of an old village deepen with time. We believe that the few remaining friendly views of the old town can be preserved without being influenced by the fast changes of the world.

배다리역사문화마을
찾아가는 길

위치 인천광역시 동구 금창동 일대
자동차 서울 출발 - 경인고속도로 진입 - 가좌IC - 동인천역 방면 - 송림로 - 새천년로 - 금곡로 - 배다리역사문화마을
대중교통 지하철 1호선 동인천역 4번 출구에서 나와 중앙시장 방면/ 지하철 1호선 도원역 2번 출구에서 나와 배다리 방면



1 매월 시낭송회가 열리고, 책으로 말하는 역사관 전시가 펼쳐지는 아벨전시관.
2 인천 최초의 공립 보통학교인 창영초등학교, 근대 건축물의 아름다움이 살아 있다.

뜨거운 열정으로 설화수의 기품을 반기다

Welcoming Sulwhasoo with enthusiasm and passion

유수의 브랜드들 사이에서 격이 다른 역사성과 최상의 제품력으로 베트남에서 가장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설화수. 베트남 여인들의 마음속에 '가장 갖고 싶은, 가장 사용하고 싶은' 브랜드로 자리 잡으며 그들에게 품위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다.

에디터 권자에 사진 코비스





아열대 속 현대인들이 만든 도시의 매력

동남아시아의 인도차이나 반도 동부에 있는 나라, 베트남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몇 가지, 기가 막히게 맛있는 쌀국수와 눈부시게 하얀 아오자이를 입은 여인 그리고 자연의 원림을 그대로 간직하며, 유유자적 강을 가르는 오래된 배들의 향연, 독특한 문화 속에서 탄생한 그들만의 소박하고도 화려한 음식 등등. 계절만큼이나 뜨거운 열정으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기회의 땅'으로 불리는 나라, 베트남이다. 그중에서도 과거 사이공이라 불리던 호치민은 남부 경제의 중심지로서, 굉음을 울리며 시내를 달리는 오토바이들이 도시를 번잡하게 하지만 화려한 듯 우아한 유럽의 운치와 소박하고 정감 가는 베트남의 이종적 매력으로 가득한 곳이다. 고전적인 베트남의 감성과 색다른 서양의 문화가 어우러진 풍경들은 보는 이의 오감을 황홀케 하며 호치민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그중 가장 아름다운 건물로 손꼽히고 있는 노트르담 성당을 비롯하여 밤이 되면 조명 속에 더욱 아름다운 오페라 극장, 그리고 호치민에서 가장 화려한 거리인 둥코이(Dong Khoi)에서 설화수를 만날 수 있다.

사람, 건물 그리고 자연 모두가 하나의 그림처럼 펼쳐지는 곳, 베트남. 시간에 쫓기지 않는 그들만의 여유로운 미소가 더욱 아름답게 느껴진다.



The charm of a city that was built by modern people in a subtropical zone

When you think of Vietnam, there are a few things that come to mind: a country to the east of the Indochina Peninsula in Southeast Asia where you can find delicious Pho, women wearing snow-white Aodai, a feast of old boats calmly floating on the rivers surrounded by the primitive forests, and the humble yet flavorful dishes originating from the country's unique culture. Vietnam has achieved remarkable development with passion as searing as the weather, and has come to be known as the fastest growing "land of opportunities." Above all, Ho Chi Minh, formerly known as Saigon, is the southern center of the country's economy. Despite the noisy motorcycles everywhere on the roads of Vietnam, it is filled with charm that represents its two unique faces: the glamorous and elegant European sentiments, and the humble and friendly atmosphere on the other. The sceneries combining the classical elements of Vietnam and the unique Western culture across Ho Chi Minh overwhelm the spectators' five senses. You can find the Notre-Dame Cathedral, which is, by far, the most beautiful structure that can be found in Vietnam, as well as the opera house that is truly breathtaking with lighting at night, and the variously sized European gardens on Dong Khoi, the most popular street in Ho Chi Minh.



베트남 내 설화수 매장 입점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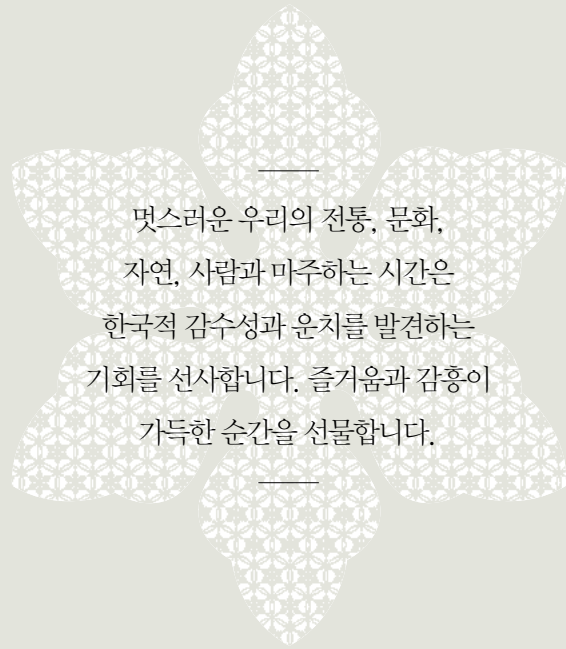
뛰어난 제품력으로 최고의 효능을 선보이다

동코이 스트리트에는 초호화 브랜드 상점들은 물론 최고급 호텔들, 아트 갤러리 또한 자리 잡고 있다. 2013년 7월, 전 세계 코스메틱 브랜드들이 선점한 호치민 다이아몬드 플라자(Diamond Plaza)에 설화수 1호점을 오픈하며 한국의 전통 깊은 한방 화장품으로서 설화수의 명성을 알리기 시작했다. 또한 2015년 12월, 파크슨 백화점(Parkson Department Store)에 설화수 2호점을 오픈, 설화수의 제품력을 좀 더 널리 전할 수 있게 되었다. 그저 입소문으로만 듣던 명품 설화수의 많은 제품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퍼펙팅쿠션. 사계절 내내 내리쬐는 강렬한 태양으로 생긴 잡티를 완벽하게 커버해줌은 물론 거친 피부 결을 곱게 다스려주는 퍼펙팅쿠션의 파워에 깊은 감동을 느낀 것이다. 퍼펙팅 쿠션과 더불어 가장 사랑 받는 제품인 윤조에센스는 아열대 기후 때문에 지치고 푸석해진 얼굴에 진정한 윤기와 영양을 공급하는 만큼 연령을 초월하여 사랑 받고 있는 애정 아이템이기도 하다. 베트남 최고 권위의 뷰티 매거진 <Dep>은 2013년 베스트 에센스로 윤조에센스를 선정했으며, 2014년에는 베스트 메이크업 제품으로 퍼펙팅쿠션이 영광의 자리에 올랐다. 베트남에서 설화수의 위상과 명성은 해를 거듭할수록 높고 강인해지고 있다. S

단아한 설화수의 매력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파크슨 동코이 매장 한국에서 건너온 효능 높은 제품들을 직접 시연하고 구매할 수 있다.

Excellent products with superior efficacies

Dong Khoi Street is occupied by high-end brands, five-star hotels, and art galleries. In July 2013, Sulwhasoo opened its first store in Diamond Plaza, which had already been dominated by many multinational cosmetic brands. This established the reputation of Sulwhasoo as Korea's herbal medicinal cosmetic brand with years of tradition. In December 2015, the second store was opened in Parkson Department Store to introduce the powerful products of Sulwhasoo to a broader target market. Among the many renowned products of Sulwhasoo, the most popular one is the Perfecting Cushion. The local people have been deeply impressed by the product because it flawlessly covers the blemishes caused by intense sunlight and refines the skin's rough texture. First Care Activating Serum EX is another popular product of Sulwhasoo as it supplies true radiance and nourishment to a tired-looking face that has been roughened by the subtropical climate. "Dep", the most widely read beauty magazine in Vietnam, has chosen First Care Activating Serum EX as the best serum in 2013, and Perfecting Cushion as the best makeup product in 2014. The popularity and reputation of Sulwhasoo has grown over the years in Vietnam.



멋스러운 우리의 전통, 문화,
자연, 사람과 마주하는 시간은
한국적 감수성과 운치를 발견하는
기회를 선사합니다. 즐거움과 감흥이
가득한 순간을 선물합니다.



가
미
감

이토록 화사한 마음, 그리고 사람
With a heart that blooms

Choi Hyun Jung

최현정

피어나고 있었다. 꿈이 희망이, 위로와 인내 그리고 배려가,
다른 이를 향한 측은자심이, 모험과 도전이, 새봄 개나리, 진달래, 목련, 산수유
아끼는 꽃들이 돌아나듯 화사하게 아름답게 방송인 최현정의 인생에 활짝.

글 이재영 진행 윤연숙 사진 전재호





세상엔 색이 있는 것과 색이 없는 것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색이 없는 것들은 대부분 공평하다. 이를테면 공기나 물 같은 것 말이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 안정을 찾고 평화를 느낀다. 사람들 중에도 공기나 물처럼 편안한 이들이 있는데 최현정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지난 10년 동안 브라운관을 통해 만날 때마다 불편함이 없었다. 너도 나도 진하게 튀어야 살아남는 방송 세계에서 돋보였던 이유는 오히려 깨끗했기 때문일 것이다. 우아하다는 의미의 '그레이스'라는 별명은 그래서 무척 어울린다. "사실 아나운서 초창기 때는 내숭이나 가식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어요. 다른 사람의 말에 예민한 편이어서 그런 이야기를 그냥 흘려 보내지 못했어요. 느낌이 뚜렷하거나 외향적이지 않을 뿐인데, 오해를 하는구나 싶어서 좀 털털해졌으면 쿨해졌으면 하고 바라기도 했죠. 바꾸려고 노력도 했고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제 본연의 모습을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우아하다는 말씀도 부담스러웠는데 이젠 편안하게 생각해요."

어려서부터 어땠는지, 타고난 성정인지 사실 잘 모르겠다. 다만 아나운서 준비를 하면서 듣기 좋게 예쁘게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한 게 도움이 된 게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 이미지가 생긴 건 말투 때문이기도 할 텐데요. 아나운서 준비를 하면서 처음 녹음한 게 목소리를 듣고 충격받았어요. 많이 낮설고 이상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목소리가 제가 들어도 이상하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듣기 좋은 소리였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말투를 예쁘게 하려고 노력했고 그런 게 쌓인 것 같아요. 또 말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말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조심하는 부분도 있죠. 물론 방송하는 사람이 너무 조심스러운 것도 좋지않은 것 같아요. 저 스스로 극

Everything in the world is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colored and colorless. Most of the things that are colorless are equal to each other. Those things include air and water. We find tranquility and peace with those things. There are people who are as comforting as air or water, and Hyun Jung Choi is one of them. She was never uncomfortable every time we saw her on TV for the last 10 years. The reason that she stood out in the broadcasting world, where only those who are colorful and unique survive, was probably that she was pristine. That is why she is nicknamed "Grace Choi," which perfectly fits her aura.

"At first, some people told me I looked pretentious. I could not ignore those people because I was sensitive then to what other people said about me. I just didn't feel distinct from others and was not outgoing, but some people misunderstood me. That made me want to be more easygoing and cool. I actually tried to change myself then, but now that I'm older, I have gotten to accept who I am. I used to be overwhelmed when people said I was graceful, but I can now take the compliment comfortably."

She is unsure if she has always been like this ever since she was young, or if she was born with it. She thinks that talking gently while preparing to become an announcer has helped. "When I was getting ready to become an announcer, I was shocked when I heard my recorded voice for the first time. It sounded strange and weird. That was when it occurred to me that I wanted to have a voice that both I and others would love to hear. So I tried to talk nicely since then, and my voice has

복해야 할 지점이기도 한데, 시청자 입장에서 시원하게 툭 하고 질문할 줄 알아야 하거든요. 이제 프리랜서로 다양한 일을 경험하려면 좀 깨트려야겠죠. 노력하고 있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왜 꼭 그래야 하나 의문이 들었다. 모두 다 세고 강해야만 하는 걸까? 누군가 한 사람쯤은 상대보다 낮은 자세로 배려하고 귀담아 들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녀는 잊을 수 없는 한 방송을 떠올렸다. 토크 배틀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상대의 약점을 말해야 했다. 두고 두고 그게 가슴에 남았다. 진심이 아니었지만 혹시 상처받았을지 모를 상대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아파하는 사람. 최현정은 방송이 끝나고 몇 해가 지나도록 괴로웠다고 한다.

말 한마디를 해도 다른 사람을 해아리는 이 아름다운 방송인은 올해부터 대학원에서 상담심리를 공부할 계획이다. 2012년부터 사회를 맡고 있는 환자샤우팅카페(한국환자단체연합회 카페 행사)의 영향도 있고, 또 내적인 계기도 있었다고 한다.

“방송 일이 소모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누군가 내 마음을 이해하고 다독여 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스스로라도 내 자신을 해아리고 보듬어주는 욕심에 책을 많이 찾아 읽었죠. 그리고 환자샤우팅카페 진행을 한 게 좀 더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환자샤우팅 카페는 병원이나 의료 환경에서 힘든 일을 겪은 아픔을 가진 분들이 억울함을 토로하고 화를 내기도 하면서 좀 더 우리나라 의료환경을 개선해나가자 하는 마음으로 열리는 카페인데요. 대부분 마음의 상처가 깊은 분들이죠. 그 분들을 만나면 공감해주고 어루만져주고 마음의 어려움을 털어주고 싶는데 방법을 모르니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럴 때 내가 전문가라면, 이 분들의 상태를 꿰뚫어

probably become better. Also, I try to be careful not to hurt others with what I say because talking is my job. Of course, it's not good to be careful all the time as a broadcaster. This is what I should overcome. I should be straightforward when asking questions. I should break out of my shell so I could have more varied stints as a freelance broadcaster.”

While listening to her, I wondered why everyone is expected to be strong and to have a profound impact on others. Wouldn't it be good if there were people who would humble themselves by being considerate and by listening to others?

This beautiful broadcaster tries to be considerate of others with every word that she says. She will begin studying counseling psychology at a graduate school this year. She was influenced by Patient Shouting Café (the café event of Korea Alliance of Patients Organization), which she has been emceeing since 2012.

“Broadcasting work tends to be consuming. I sometimes think that it would be nice to have someone who understands and comforts me. I read many books in the hope of understanding and comforting myself. Emceeing Patient Shouting Café became a more critical turning point in my life. Patient Shouting Café is an event to which anyone who has had a bad experience at a hospital or with the healthcare system is invited to talk about such experience, with the aim of improving South Korea's healthcare environment. Most of the participants are deeply hurt inside. I wanted to empathize with and console them and help them feel better, but I didn't know how to





보고 올바른 위안이 되어주었으면 하는 욕망이 생겼죠. 그래서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어요.”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고 진짜 위로를 주기 위해 공부를 시작한다니. 자리아타自利利他라 했던가. 자신 뿐 아니라 남을 위하여 도를 닦는다는 그 말에 꼭 맞는 그녀의 계획에 아름다운 꽃 향기가 난다. 아나운서 시절에 가장 보람됐던 것도 별 거 아닌 자신의 말 한마디에 힘을 얻는 사람들을 만날 때였다. 그냥 한 말이었는데 고마워하는 사람들을 보며,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준 것에 감사하고 가슴 벅찬 보람을 느꼈다. 프리랜서 방송인이 된 지 1년. 다른 이에게 영향을 끼치고 올바른 위로를 전하기 위해 시작한 공부 외에 새로운 방송 계획도 올해 잘 해내야 할 목표 중 하나이다.

“명사를 모시고 그 분들의 삶에 대해 듣는 tvN <빨간 의자>라는 방송과 EBS 라디오 <책으로 행복 한 12시>의 진행을 맡게 됐어요. 가족 같던 동료들과 헤어지고 전부이자 우주였던 회사를 나와 새로운 모험을 시작할 때 과연 이게 맞아 고민도 했지만 지금은 앞을 보고 나아가려고 해요. 10년 간 함께 했던 동료들과의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나와보니 새삼 알겠어요. 그 동료들을 생각해서라도 방송인 최현정으로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전부이자 우주였던 회사를 나왔지만 그 덕에 우리는 좀 더 친근하게 최현정이라는 깨끗하고 선한 우주를 만날 수 있게 됐다. 그 우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 받고 치유되기를. 그로 인해 그들의 행복이 꽃잎처럼 돌아나기를. 기다리던 봄소식처럼 화사하고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S

do that. I wanted to be an expert so I could see through other people's conditions and give them the comfort that they needed. That's why I'm going back to school.”

What's most rewarding for her as an announcer is when something that she said gave strength to someone else. She's thankful and feels deeply rewarded when she's able to exert a positive influence on others, and when other people appreciate the little things that she said. It has been a year now since she declared that she would become a freelance broadcaster. Her other goal this year besides studying to exert a positive influence on others and ultimately to console them in the right way is to succeed with the new broadcasting programs.

“I will be hosting tvN's <The Red Chair>, where I will invite renowned people and ask them to listen to the stories of their lives, and EBS Radio's <Happy Noon with Books>. I was unsure if it was the right thing to do when I parted from my former colleagues, who were like family to me, and started a new adventure outside the company that was my everything, my universe, but I'm trying to move forward now.”

She's now out of the company that was everything to her, but thanks to her decision to leave the company, we became more acquainted with the pure and good universe of Hyun Jung Choi. It hopes that more people would be consoled and healed in that universe, and that their happiness would bloom just like the bright and beautiful petals heralding the coming of spring.

메이크업 정리(엔플로에 02-517-9111) 헤어 세희(엔플로에) 스타일리스트 안수명 도움 주신 곳 라이(02-516-4088) DKNY(02-3444-1730) 닌트(02-3442-0220) 리사코쥬얼리(02-6402-0019) 케이트앤켈리(02-508-6033)

그릇에 담긴 삶의 운치 한 조각

안이 우뚝하게 들어간 식기, 즉 불(Bowl)은 크기와 재질에 따라 용도를 달리한다.
음식을 담아 맛을 배가시키고 평범했던 공간에 운치를 더하는 훌륭한 소품으로 손색없는,
작가의 감성이 살아 숨쉬는 현대판 불의 멋.

에디터 권지에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이승원



왼쪽부터 긴 타원형 면기 광주요, 모던한 흰빛 사각불 광주요, 두 개가 겹쳐진 백자 '순'리인은 이윤신 작가 작품으로 이도갤러리,
세 가지 사이즈 별 백자 불은 인현식 작가 작품으로 KODF갤러리, 겹면에 질감을 준 백자 불 우일요, 백자 사발 이기조 작가 작품으로
이름지기 매트한 타원형 백자 불 신동미 작가 작품, 키가 큰 백자 면기는 이만수 작가 작품으로 LVS크래프트,
백자 대접은 이기조 작가 작품으로 이름지기, 백자 날개 불은 이인화 작가 작품으로 LVS크래프트.



왼쪽 페이지 (위에서부터) 다양한 사이즈의 파스텔 톤 기동 형태의 볼은 이가진 작가 작품, 인디핑크의 매트한 핑크 톤 볼은 by 플랫폼포인트, 겹쳐진 그레이 볼 모두 이지은 작가 작품, 낮은 볼은 장미네 작가 작품, 옐로와 핑크의 실린더 볼은 이인화 작가 작품으로 LVS크래프트.

오른쪽 페이지 1, 2 등과 옷칠로 된 두 가지 볼 모두 민소영 작가 작품, 3, 8 방짜 주석 볼과 방짜 백동 그릇 모두 아름지기, 4 금속과 법랑, 철보로 만들어진 화이트 볼은 김윤진 작가와 권중모 작가 작품으로 함(Haam), 5 옷칠 타원형 볼은 허명욱 작가 작품으로 조은숙 아트앤라이프스타일 갤러리, 6 그릇에 옷칠한 뉴문 스톤 접시는 문재훈 작가 작품으로 다문, 7 메탈 소스 볼은 강희성 작가 작품으로 해브빈서울.



도자와 금속이 주는 색다른 감촉

파스텔컬러의 인기가 대단하다. 백자와 청자로만 생각했던 도자의 고정관념을 깨뜨린 부드러운 파스텔 톤의 도자 그릇들은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장식성 높은 소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멋을 간직하며 단단한 견고함으로 사랑받고 있는 구리, 황동(놋쇠) 소재 등의 볼은 일상의 공간에서 풍부한 매력을 발산한다.



유리와 나무로 느끼는 또 다른 무드

유리에는 기분을 맑게 해주는 신비한 기운이 서려 있다. 식탁 위 식기에서부터 투명한 자태와 색채를 뽐내는 아트 오브제까지. 다채로운 유리 볼들이 보는 이의 마음을 흔들어놓는다. 또한 식문화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한 소재로 만든 안전한 그릇, 나무 소재 볼들에 자꾸만 시선을 뺏긴다. 나무의 결과 향까지 들어 있는 볼들은 힐링의 기운을 전달하기도.

왼쪽 페이지 (위에서부터) 아래로
 좁아지는 형태의 패턴 유리 볼은 카즈미 작가 작품으로 조은숙 아트앤라이프 스타일 갤러리, 류징과 슬럼핑 기법의 유리 접시는 임혜진 작가 작품으로 투담, 블루 그라데이션 유리 볼은 양유완 작가 작품으로 모모와니, 퍼플 유리 접시는 라 메디테라네아 by 스미일리지, 블로잉 기법의 옐로 컬러 유리 볼은 두나래 작가 작품으로 투담
오른쪽 페이지 (위에서부터) 물푸레 나무에 민트 컬러 옷칠을 한 밥공기는 앤드바움 by 해브빈서울, 타원형 우드 볼은 블루레노, 긴 형태의 우드 볼은 스토아엔 스토리지, 오목한 형태의 우드 볼은 임정주 작가 작품으로 물건연구소



꽃이 가장 먼저 말을 건넵니다, 봄이 왔다고

메마른 가지 끝으로 살포시 생명의 기운이 드러난다. 피고 지는 건 한순간일지라도 작은 봉오리로부터
봄을 피운 꽃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피어오른다.

에디터 권자에 사진 이종근

움트는 봄의 기운으로
꽃을 피우네

절로 미소 짓게 만드는 봄의 전령사들이 흐드러지게 피어난다.
잎보다 꽃잎이 먼저 나오고 대부분 키가 작거나 꽃이 작지만 다른 계절의 꽃보다
화사하고 정갈한 멋을 지닌다. 봄꽃 만발한 산등성이는 벌과 나비들의 밀원으로
서로에게 가장 아름다운 언어의 유희를 전하고 있다.



꽃을 닮아
화사하고도 우아한

고귀한 홍매화의 기품이 화사한 생기로 물들다. 블루미너스 펄 파우더가 피부에 투명하고 화사한 빛을 선사하여 두 뺨에 꽃물을 들인 듯 자연스럽게 생기를 불어넣는 설화수 래디언스 블러셔. 매화 꽃잎에 물들 듯 자연에 가까운 은은한 컬러가 본연의 입술 색에 생기를 더해 건강하게 빛나는 입술로 마무리해주는 설화수 에센셜립세럼스틱(5호)



눈부시게 반짝이는
봄빛의 노래

따뜻하게 비추는 봄 햇살에 겨우내 움츠렸던 삶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다. 생기로 가득 찬 봄빛만큼이나 화사하고 활기찬 피부로 표현해주는 설화수 퍼펙팅쿠션 브라이팅. 봄철 만개하는 목련 추출물과 맑고 영롱하게 빛을 발하는 진주모 콤플렉스가 함유되어 어느 각도에서나 빛나는 얼굴로 완성된다.



우리와 어우러지며 맛을 더한 서양 채소 A balanced combination of western vegetables and korean cuisine

맛과 영양을 고루 갖춘은 물론이요 토종 재료들과 스스럼없는 어울림을 통해 새로운 미감을 만들어낸다. 산 넘고 바다 건너 우리 땅에 정착한 서양 채소들의 '색'다른 맛의 향연

에디터 권지에 사진 이종근 푸드 아티스트 노영희

이름조차 낯설게만 느껴졌던 서양 채소들이 어느새 친숙한 식탁 위 재료들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우리의 입맛을 즐겁게 한다. 이렇듯 귀화하여 우리 땅에서 재배되는 서양 채소들은 엽채류葉菜類로는 케비지, 아스파라거스, 셀러리, 파슬리, 콜라비 등이 있고, 과화채류果花菜類로는 피망, 콜리플라워, 브로콜리 등이 있으며, 근채류根菜類로는 비트, 래디시 등 거의 60여 종이 된다. 이제는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개인의 취향과 스타일 따라 다양각색의 맛과 멋을 내는 서양 채소를 이용해 만든 한국 음식의 맛, 단연코 일품이다.

Various western vegetables, which are unfamiliar to us, have become part of the common ingredients in daily table settings for a harmonious feast filled with gastronomic delights. The western vegetables that have naturally grown in our soil include cabbages, asparagus, parsley, and kohlrabi in the leaf vegetable group, bell peppers, cauliflowers, and broccolis in the fruit/flower vegetable group, and beets and radishes in the root vegetable group. There are almost 60 different kinds and they are now easy to find. They are also used to explore a variety of personalized tastes and dishes. The combination of Korean cuisine and western vegetables definitely reigns supreme.

단맛 도는 비트와 부드러운 생크림의 조화 색감 고운 비트수프

아삭한 식감과 자연의 단맛을 갖고 있는 레드 비트는 색만큼이나 효능 또한 강하다. 비타민A, 칼륨, 섬유질 성분 또한 풍부한 비트에 양파와 버터를 넣고 볶아 물을 부어 충분히 익힌 후 믹서에 갈아준다. 여기에 생크림을 섞어 만든 수프는 든든한 아침 식사로도 충분하다.

Colorful Beet Soup

Red beets, also known for their crunchy texture and naturally sweet taste, are vibrant in color and packed with essential nutrients, such as Vitamin A, potassium, and fibers. Stir-fry beets with onions and butter, and add water to cook thoroughly. Then, grind in a mixer. Add cream to make a soup for a hearty breakfast.



고소한 잣과
아삭한 콜라비의 어울림
콜라비 잣만두

콜라비는 양배추와 순무를 교배시킨 채소로 수분과 비타민C의 함유량이 높아 건강식에 빠지지 않는 재료이기도 하다. 반달 모양으로 자른 콜라비를 최대한 얇게 썬 후, 그 안에 볶은 잣을 넣고 달걀 흰자를 콜라비 안쪽 테두리에 바른 후 삼각형 모양이 되도록 접어준다. 기름을 두른 팬에 굽는다.

Kohlrabi and Pine Nut Dumplings

Kohlrabi, also known for being the hybrid of a cabbage and a turnip, is a great ingredient for healthy meals. It is rich in moisture and Vitamin C. Cut a kohlrabi in the shape of a half moon and slice as thinly as possible. Add roasted pine nuts and apply egg white on the inner edge of the kohlrabi slices. Then, fold in half to make triangle shapes, and pan-fry with oil.

매콤 달콤한
무침장과 만난 감칠맛
고수무침

향이 강해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고수지만 우리네 양념장과 만나면 색다른 무침으로 탄생한다. 달래와 더덕, 부추 등 좋아하는 생채를 고수와 함께 넣고 고춧가루, 식초, 설탕을 섞어 만든 양념장을 넣어 함께 무쳐준다. 입맛 살리는 채소무침은 물론 고기쌈 속 아재로도 훌륭하다.

Seasoned Cilantro

Due to cilantro's strong flavors, not all people are accustomed to its taste. However, it turns into a unique seasoned green when incorporated with the Korean-style seasoning sauce. Mix your favorite fresh greens, such as wild chives, *Codonopsis lanceolata*, and chives, with cilantro and add the sauce prepared with hot pepper powder, vinegar, and sugar. This appetizer filled with seasoned greens is also great for wraps with grilled meat.



신선한 바질의 향긋함을
국수로 후루룩
바질 페스토 비빔국수

인도가 원산지이며 머리를 맑게 하고 두통을 없애는 효과로 유명한 바질은 신선한 잎을 바로 따서 사용한다. 올리브오일과 마늘, 치즈 등을 섞어 만든 바질 페스토는 다양한 서양 요리에서 사용되는 그린 소스로 풍미가 가득한 것이 특징이다.

Basil Pesto Noodles

Basil originated from India and it is commonly used as a home remedy for headache relief. It is used fresh by picking the leaves from its stems.

Basic Pesto is a green sauce prepared with olive oil, garlic, and cheese, among others, and filled with flavors that enhance the taste of various western dishes.

바질 페스토 비빔국수
Basil Pesto Noodles

재료 생바질, 파르메산 치즈 또는 페코리노 치즈, 올리브오일, 소면, 마늘, 볶은 잣

만드는 법

1 여러 번 깨끗이 씻은 바질은 물기를 빼기 위해 면보 위에 올려놓는다. 2 치즈는 갈아놓고, 프라이팬에 기름 없이 볶은 잣도 갈아놓는다. 3 물기를 뺀 바질과 마늘 2~3톨, 올리브오일 한 컵 반 정도를 넣고 함께 갈아준다. 4 갈아둔 치즈와 잣을 3에 넣고 다시 한 번 갈아준 후, 삶아낸 가는 국수와 함께 버무린다.

Ingredients Fresh basil, parmesan cheese or pecorino cheese, olive oil, somen noodles, garlic, and roasted pine nuts

Recipe

- 1 Rinse the Basil leaves thoroughly under water and place on a cloth to remove excess moisture.
- 2 Grind the cheese and pine nuts that have been roasted in a pan without oil.
- 3 Grind the fresh Basil leaves, 2-3 cloves of garlic, and olive oil (about 1 ½ cup) together.
- 4 Add ground cheese and pine nuts to 3 and grind again. Mix with boiled somen noodles.





복고와 모던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새로움

Busan & Hong Kong

부 산 & 홍 콩

사람들로 가득하지만 숨통을 틔우는 바다를 품고 있으며, 눈부시게 화려하지만 소탈한 멋을 간직하기에 언제나 이끌리는 도시. 부산과 홍콩은 그렇게 다른 듯 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준다.

에디터 권지에 사진 백지현, 코비스



고층 빌딩과 함께 어우러진 고기집이 어선들이 잡아 올린 각종 해산물의 천국이기도 하다. 부산 해안 절벽에 세워진 해동용궁사의 모습은 일출, 일몰과 함께 가장 멋진 광경을 안겨준다.

홍콩 시내 중심가에 자리 잡은 왕타이신 사원(Wong Tai Sin Temple)은 염원과 함께 피어오르는 향내음으로 가득하다. 밤을 밝히는 홍콩의 야시장에서는 독특한 해산물 요리를 맛볼 수 있다.

거리는 약 2,403킬로미터 그러나 시차는 겨우 1시간. 부산과 홍콩은 망망대해의 바다를 대면하고 있지만 떼어내 붙여놓고 보면 바로 옆 친숙한 동네처럼 닮은 면을 꽤나 많이 갖고 있다. 부산에서 출발하는 홍콩행 항공편이 부쩍 늘어난 만큼 더욱 친밀도를 높여가는 두 도시. 비록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빈티지한 감성과 트렌드를 이끄는 과감한 도전정신으로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도시로 진화하고 있다. 홍콩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허버 사이드 고층 빌딩들의 눈부신 향연은 부산 해운대와 광안리 해변을 따라 포진하고 있는 초고층 아파트들의 아찔함과 자연스레 오버랩된다. 하지만 두 도시의 진정한 멋은 현대적인 건물이 주는 압도적인 경이로움이 아닌, 건물 아래 좁은 공간에 마구 흐트러져 있는 골목길, 그리고 그 골목길을 따라 틈새 없이 붙어 있는 오래된 상점과 시장, 그 안에서 술술 뿜어져 나오는 인간적인 향기에 있다. 글로벌 브랜드들의 총 집결지이자 경제 동력의 중심지로서 소품과 다양한 먹거리로 유명한 부산과 홍콩. 그러나 타임캡슐을 돌릴 때마다 툭툭 튀어나오는 오래된 풍경들은 감히 촌스럽다 치부할 수 없는, 두 도시의 자존감과 더불어 현대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한다.

The distance between Busan and Hong Kong is approximately 2,403 kilometers; however, the time difference is only an hour. As more flights travel to Hong Kong directly from Busan, the two cities have become even closer, thereby evolving into world-class cities with vintage sentiments and bold challenges to lead trends despite their different languages. The splendid feast of high-rise buildings at the harborside, which characterizes Hong Kong, is naturally overlapped with the high-rise apartments along the beaches of Haeundae and Gwangan-ri in Busan. However, the true beauty of the two cities is not the dominance of the modern buildings, but the narrow and unorganized alleys beneath the buildings, the rows of old stores and markets along the alleys, and the humane atmosphere. Busan and Hong Kong are known for the shopping venues, a wide variety of hubs for global brands, and economic power centers. Nevertheless, the old-fashioned sceneries that pop up every time you turn are not outdated, but instead appear as the pride of the cities and the invisible power supporting them at present.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영화계의 별들을 부산으로 한데 모으는 부산국제영화제는 모든 이들의 축제와도 같다.
아시아는 물론 세계 아트의 소동 창구인 홍콩 아트 바젤은 해마다 열린다.

클래식과 모던이 공존하는 만큼 다양한 영화 속 배경으로 자주 등장하는 두 도시. 스크린 안에서 현실 세계로 드래그하면 일시정지된 화면 속에 있던 풍경들이 활기차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영화는 물론 예술인들의 창작 정신을 사랑하는 부산이 예술의 중심지가 된 것은 꽤 오래전이다. 스타들의 애정 공세가 끊이지 않는 부산국제영화제가 가을을 수놓고, 서울을 비웃는 미술 전람회인 아트 부산이 여름을 뜨겁게 장식한다. 세계적으로 걸출한 아티스트들을 탄생시키기도 하는 홍콩 아트 바젤은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유명하다. 그렇기에 허름한 풍경 사이 크고 작은 갤러리들이 생경하지만,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주변을 흡수시킨다. 여기에 두 도시를 얘기하면서 빠질 수 없는 단어는, 바로 바다. 작은 고기잡이 어선부터 고가의 새하얀 요트들, 그리고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대형 여객선까지. 바다를 품고 역사를 만들어온 항구 도시이기에 사계절 싱싱한 바다 진미들이 넘쳐난다. 해산물을 중심으로 하여 셀 수 없이 많은 종류의 음식들은 토박이들은 물론 여행자들의 허기진 마음을 달래주며 아시아적 미감을 업그레이드시켜 준다. 이토록 다양성이 주는 매력으로 채워진 도시 안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는 사찰은 또 다른 성찰의 시간을 안긴다. 해안선을 따라 돌 위에 지어진 해동용궁사 등의 사찰이 지나는 이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고, 도심을 거닐다 자욱하게 퍼지는 연기에 이끌려 들어간 웅타이신 사원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과 함께 잠시 소원을 빌어본다. 5

With the co-existence of tradition and modernity, the cities often appear in various films. The sceneries found in a paused screen move lively as you drag from the screen to the real world. Busan has been the center of arts for quite some time due to its love for the creative minds of filmmakers and artists.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constantly attracts many celebrities during the fall season. Meanwhile, Art Busan, which is an art exhibition that sneers at Seoul, brings enthusiasm during summer. Needless to say, the Art Basel Hong Kong, which gives birth to globally renowned artists, is popular around the world. There are many galleries amidst the ragged sceneries. When talking about the two cities, the sea always comes to mind. From the small fishing boats to the white expensive yachts, as well as the gigantic cruise ships, there are fresh seafood all year round, as there are port cities with long histories by the seas. A wide variety of special dishes, with or without seafood, satisfy the local people and the hungry tourists due to the presentation of the food. The temples you come across in the enchanting cities give you time to do some soul searching. A number of temples, such as the Haedong Yonggungsa Temple, were built on rocks along the coast, thereby captivating the curious passersby in Busan. Meanwhile, the Wong Tai Sin Temple attracts you with its thick smoke in the middle of the city, and invites you to make a wish amongst the hundreds of people in Hong Kong.

견고한 피부를 바탕으로 완성시킨 맑은 아름다움

하얗기만 한 피부가 아닌 맑고 깨끗한 피부를 향한 열망은 근본적인 원인에 대처하는 설화수의 자정라인에 의해 완성된다. 이와 함께 명작의 품위를 간직하며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제품을 소개한다.

에디터 권지에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부로드 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이승원



자정미백에센스 Snowise Brightening Serum

얼굴을 더욱 그늘지고 칙칙하게 만들었던 멜라닌의 증가를 억제하고 저하된 탄력감을 증진시켜 주어 피부 속부터 가득 채우는 볼륨 브라이팅을 선사하는 제품이다. 피부 톤과 질감 모두를 만족시키며 얼굴에 진정한 '어린 피부 빛'을 선사한다. **How to Use** 아침과 저녁 자정수 사용 후, 적당량을 손바닥에 펴핑하여 피부 결을 따라 손끝으로 퍼 바른다.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얼굴을 감싸 흡수를 도와준다.

자정미백스팟트리트먼트 Snowise Brightening Spot Treatment

백삼 미백 성분이 멜라닌의 과다 생성을 유발하는 원인인 멜라닌 밸브를 잠궈, 피부에 기미, 잡티가 넓게 확산되는 것을 막아준다. 젤 크림 텍스처로 넓게 퍼진 잡티 부위를 뭉침 없이 매끈하게 감싸주며, 좁은 부위는 밀착력 있게 스며든다. **How to Use** 사용량을 조절하여 손등에 내용물을 덜어낸 후, 피부 결을 따라 손끝으로 퍼 비른다. 고민이 되는 잡티 부분을 한번 더 두드려준다.

자정미백크림 Snowise Brightening Cream

백삼농축다당체가 피부 결 사이사이에 보습감을 채워주어 색소 침착으로 인해 약해진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안팎으로 맑고 투명한 빛이 나오는 피부 환경을 만들어준다. 피부 진정을 도와주는 백화사설초와 흑독한 환경에서도 고유의 색과 수분을 잃지 않는 백련초 추출물이 메마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균일한 피부 톤을 케어한다. **How to Use** 아침 저녁으로 자정미백스팟트리트먼트 사용 후, 적당량을 손바닥에 덜어 얼굴과 목에 부드럽게 발라준다.



자정스크럽젤 Snowise Brightening Exfoliating Gel

무차별적으로 생기는 크고 작은 피부 각질은 스킨케어의 유효한 성분들이 흡수되는 통로를 방해한다. 입자가 작고 고운 백삼 파우더가 각질을 부드럽게 밀어내며, 수분 밸런스 조절에 탁월한 꿀 성분을 함유하여 스크럽 후에도 촉촉함이 가득하며 매끄러운 피부 결을 만들어준다. **How to Use** 매일 클렌징 후 물기 있는 얼굴에 100원 동전의 크기로 취해 2분간 마사지하여 가볍게 문지른 다음, 팩처럼 30초간 나둔 후 씻어낸다.





자정라인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미백이 단순히 색감 케어에만 집중한 미백이었다면, 설화수의 자정 라인인 피부의 질감까지 케어하는 새로운 미백의 영역이다. 멜라닌의 과잉 생성을 억제하여 색소 침착을 막는 것은 물론 맑고 투명하게 빛나는 피부로 만들어 만져보고 싶은 피부를 갖게 하기 위해 피부 속에서 일어나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에 접근했다. 설화수의 전문적인 영역인 안티에이징과 인삼에 대한 독자적인 헤리티지를 자정 라인에 접목시켜 단순하게 빛을 피부 겉에 입히는 것이 아닌, 피부 속에서부터 환한 빛을 가득 채워 볼륨 브라이트닝이라는 새로운 화이트닝 솔루션을 제안한다. S

Snowise Line The brightening formulas we have used so far have focused solely on skin tone correction, but Sulwhasoo's Snowise Line goes a step further, inviting us to a new world of brightening that also refines our skin's texture. It not only inhibits excess melanin generation to prevent pigmentation but also approaches the more essential causes of skin aging found in the skin itself to help us restore a flawless texture, with clarity and transparency. Sulwhasoo's expertise and accumulated know-how in anti-aging and ginseng have been applied to Snowise Line to suggest a new brightening solution called "Volume Brightening." It does not just wrap the skin with radiance but fills it with bright light from deep within.

화사한 봄을 알리는 설화수의 소식

아시아에 맑고 투명한 빛을 전하다

설화수는 1월 27일부터 3일간 태국 코사무이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글로벌 5개국 주요 미디어를 대상으로 자정미백에센스 론칭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홍콩, 대만 등에서 32여 명의 주요 뷰티 미디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코사무이 지역 특산품으로 유명한 천에 자정미백에센스 광고 비주얼을 직접 그려 넣는 바틱 페인팅(Batic Painting)과 자정미백에센스의 키 메시지인 'Volume Brightening'을 연계한 볼(Ball) 요가 등에 참여해 제품의 베니핏과 메시지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태국 프레스 행사를 시작으로 자정미백에센스가 더욱 많은 글로벌 고객들에게 사랑받기를 기대한다.



온종일 풍부한 촉촉함으로 봄을 맞이하다

하루 종일 피부를 촉촉하게 지켜주고, 결점 없이 자신감 있는 피부로 완성해주는 '에서 메이크업 라인'을 리뉴얼 출시한다. 새롭게 리뉴얼된 에서 메이크업 라인인 (왼쪽부터) 파운데이션, 스킨케어, 트윈케어, 파우더 등 4종으로 구성됐다. 보습감을 끌어올리는 에서단과 커버 파우더 입자가 업그레이드되어 높은 커버력에도 고급스러운 텍스처와 깊이 있는 보습감을 선사한다. 제품의 패키지 또한 기존에 비해 콤팩트하면서도 우아하고 세련된 색상과 디자인으로 변경됐다. 3중 보습 메커니즘을 갖춘 에서단은 에서 라인의 핵심 성분으로, 이번 리뉴얼을 통해 유·수분 밸런스가 향상됐다. 이뿐만 아니라 '농묵 공법'을 적용, 높은 보습 지속력을 구현했다.



올봄 메이크업에 생기를 더하다

설화수가 피부에 건강한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멀티컬러 블러셔를 출시했다. 두 볼에 화사한 혈색과 윤기 있는 피부 빛을 자연스럽게 더해주는 '설화수 레이디언스 블러셔'는 믹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은은한 생기를 위한 메인 블러셔, 농담 조절을 위한 진홍빛 포인트 블러셔, 하이라이팅 효과를 위한 하이라이트 세 가지 컬러로 구성되어 있으며, 1호 핑크 하모니와 2호 코랄 하모니 총 2호수가 출시됐다. 한편 생기 있는 매끈한 입술로 케어해주는 설화수 에센셜 립세럼 스틱이 2016년 3월 세 가지 호수가 추가된다. 3호 플라워 핑크, 4호 로즈 레드, 5호 블라썸 코랄이 추가되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며 고영양, 고보습 세럼 베이스가 색소를 꽉 붙잡아 입술에 건강하고 윤기 있는 컬러를 더한다. 레이디언스 블러셔 10g, 6만원대/ 에센셜 립세럼 스틱 3g, 4만원대



아름다움을 밝히는 지혜의 빛을 피부로 만날 시간

설화수는 3월 30일에 오픈 예정인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의 시작을 기념하여 랜턴컬렉션 출시한다.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의 모티프인 '등불(Lantern)'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랜턴컬렉션은 아름다움을 밝히는 지혜의 빛을 상징하며, 오직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만 한정 수량 판매된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5길 18(도산공원 맞은편)



아름다움을 밝히는 지혜의 빛을 전하다 Capturing and delivering wisdom and radiant light



자음생크림 랜턴컬렉션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Lantern Collection*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한정 판매 | 3월 30일 출시 예정)

50년 인삼 연구의 정수를 담은 설화수 자음생크림은 인삼의 생명력을 피부 깊이 흡수시켜 피부의 힘을 탄탄하게 되돌리고, 피부 속부터 윤택한 기운을 치오르게 한다. 60ml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embodying the fruits of the 50-year study of ginseng, ensures deep absorption of ginseng vitality for a youthful, refined skin. 60ml

* Only available from March 30th at Sulwhasoo flagship store, across Dosan Park

수 천년 간 전해 내려온 아시아의 지혜를 상징하는 '등불(Lantern)'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랜턴컬렉션. 자음생크림과 윤조에센스를 더욱 귀하게 담아 피부에 건강한 윤기와 고귀한 빛을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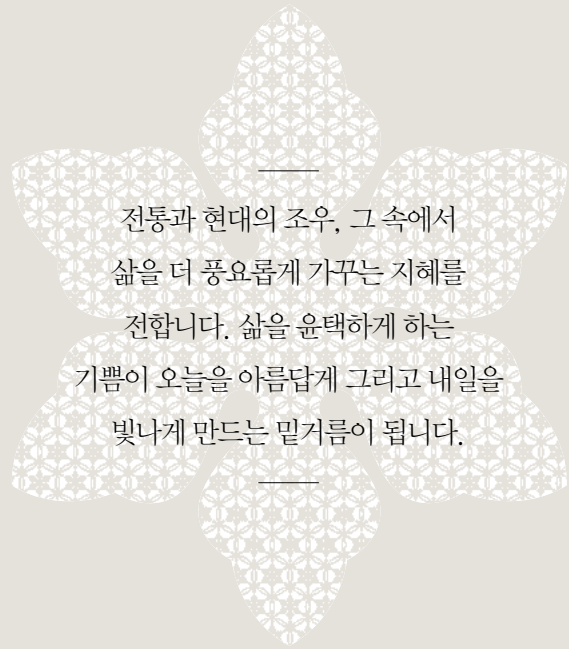
에디터 권지에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플로리아)



윤조에센스 랜턴컬렉션
First Care Activating Serum EX Lantern Collection*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한정 판매 | 3월 30일 출시 예정)

아시아의 지혜를 담아 조화와 균형을 이루주는 자음단TM에 설화수의 집념으로 완성된 독보적인 기술, PRExtract ProcessTM를 더한 부스팅 효과로 윤기의 절정을 선사한다. 60ml와 120ml

Delivers the ultimate radiance to skin with the boosting effect of JAUM Balancing ComplexTM completed with Sulwhasoo's proprietary PRExtract ProcessTM technology. 60ml or 120ml



전통과 현대의 조우, 그 속에서
삶을 더 풍요롭게 가꾸는 지혜를
전합니다.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기쁨이 오늘을 아름답게 그리고 내일을
빛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의
의
의





꽃이라는 자연으로 만든 마음

플 라 워 박 스

말 그대로 상자 안에 꽃을 담아 연출하는 플라워 박스는 간단하지만 만들기 쉽고 센스 가득한 선물이 된다. 차분하게 다듬어진 꽃과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싱그러운 초록잎들.

받는 이와 주는 이 모두에게 마음 깊숙이 따사로운 봄을 선사한다.

에디터 윤연숙 사진 김민은 도움 주신 곳 도로스아넥스 서울, 바롱 레스타(김진 인터내셔널)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하고 싶을 때, 상대방의 도움에 고마움을 전할 때... 값비싼 물건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 마음과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을 때 자연스레 꽃을 떠올리게 된다. 자연에서 피어난 꽃들은 다채로운 색감과 그에 어울리는 각각의 향기로, 주는 이와 받는 이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꽃이 사용되는 상황에 맞춰 컬러를 정하고 꽃의 종류를 고르고, 부케 타입이나 베이스에 꽃을 꽂는 등 어레인지먼트를 만드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그렇다고 프로페셔널 플로리스트만이 꽃을 만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꽃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꽃과 친해질 수 있으니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

작은 산들에 둘러싸여 계절의 변화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서래마을, 차량의 소음이 현저히 줄어든 골목 초입에 꽃과 친해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뉴욕에 본점을 두고 있는 도로스아넥스 서울의 김정민 플로리스트는 작은 한 송이 꽃으로도 크나큰 감동을 전해줄 수 있다고 말한다.

천 천히 꽃과 함께 대화를 시작하다

들판에 흐드러지게 핀 이름 모를 꽃잎지연정 추위와 거친 비바람 등 온갖 고난을 이겨내고 피어난 생명력 강한 꽃들은 작은 봉오리에서 시작해 꽃잎을 활짝 피우는 절정의 순간을 지나 다시 소박했던 처음 모습으로 되돌아간다. 돌고 도는 윤희의 인생을 살며 보는 이에게 희로 애락의 순간을 선사해주는 꽃. 산과 들에 핀 꽃들을 그대로 옮겨놓을 순 없을지라도, 꽃을 곁에 두고 친해지기 위해서는 기본 성격과 특징들을 잘 알아야 한다.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지 않고 꽃을 대하면 아무리 비싸고 좋은 것을 구입하더라도 쉽게 생기를 잃고 고개를 숙이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듯, 꽃 역시 마찬가지다. 색깔은 화려하지만 그에 비해 향기는 별로인 꽃이 있는가 하면 볼품없다 생각했는데 향기에 마음을 송두리째 뺏겨 버리는 경우가 왕왕 일어난다.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꽃에게 다가가면 꽃 역시 열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기 시작한다. 상상 이상으로 많은 종류의 꽃



마음을 담은
플라워 박스 만들기

- 1 준비물 : 오아시스, 잉글리시 가든로즈, 러년쿨러스, 아네모네, 양귀비, 헬레보루스, 스키미아, 선물용 박스, 화훼용 가위
- 2 물이 새지 않도록 상자 안에 비닐을 깔아준 후, 물을 가득 먹인 오아시스를 채운다.
- 3 꽃의 줄기를 적당한 길이로 잘라준다.
- 4 메인으로 사용할 잉글리시 가든로즈를 균형감 있게 오아시스에 꽂아준다.
- 5 러년쿨러스, 아네모네, 양귀비, 헬레보루스, 스키미아 등을 오아시스에 꽂아준다.
- 6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준 후 상자 뚜껑을 덮거나 투명 비닐로 포장 후 리본으로 마무리.

도로서아넥스 서울 :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지되는 원데이 클래스에 신청하면 다양한 플라워 에레인지먼트를 배울 수 있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반포동 83-9 지층 문의: 02-545-3858)

들이 피고 지며 우리 곁에 머물렀다 떠나가는데 줄기가 커팅된 꽃들, 즉 절화는 차가운 온도에서 신선함을 오래 유지한다. 일반적인 적정 온도는 2~4도 정도이고 아프리카 등지에서 수입된 열대성 식물들은 10~12도를 유지해야 한다. 너무 따뜻하거나 너무 추운 곳에서 꽃을 보관하면 꽃의 수명은 현저히 짧아짐을 잊지 말 것.

계절에 맞춰 피고 지는 시즌 플라워가 가장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데 봄의 시작을 알리는 꽃으로 개나리, 진달래, 벚꽃부터 꽃잎이 얇은 스위트피, 러년쿨러스, 풍성한 볼륨감으로 사랑받는 작약, 올망졸망 작은 꽃들이 마치 눈처럼 달려 있는 설유화까지. 겨우내 움츠렸던 수많은 종류의 꽃들이 봄이 되면 앞다투어 얼굴을 피운다. 이외에도 국내 생산은 물론 콜롬비아, 에콰도르, 캘리포니아, 네덜란드에서 수입되며 사계절 만날 수 있는 장미와 수국은 물론 히야신스, 튜립 등 예전에는 좀처럼 보기 어려웠던 수입화들을 쉽게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종류에 따라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줄기가 가늘거나 힘이 약한 봄꽃들은 쉽게 꺾이기 쉽다. 따라서 에레인지먼트를 만들 때나 베이스에 꽃을 때 손에 너무 힘을 주지 말고 잡아야 하는 것은 사소하지만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다.

간 단 하 지 만 섬 세 하 게 케 어 하 다

원하는 꽃을 구매한 후 가지를 치고 불필요한 잎들을 제거하는 등의 클리닝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줄기 끝 부분은 꽃의 신선함을 오래 유지시킬 수 있는 물이 공급되는 곳인 만큼 세심한 케어가 필요하다. 칼이나 화훼용 가위를 이용하여 대각선으로 잘라주어 물이 원활히 공급 되도록 해야 한다. 꽃을 선물 받으면 어떻게 관리해야 오래 볼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데, 앞서서도 말했듯이 따뜻한 곳에서는 그리 오래가지 못하기에 바람이 잘 통하는 신선한 곳에 놓아야 한다. 받은 꽃을 화병에 넣을 경우에는 하루에 한번씩 찬물로 갈아주어야 한다. 오아시스를 이용해 만든 에레인지먼트는 물을 갈아줄 수 없으므로, 오아시스에 물을 부어 마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포인트. 물을 부을 때는 꽃잎에 물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비록 한 송이 꽃일지라도 마음을 담은 꽃에는 주는 이의 향기로운 마음이 들어 있기에 꽃의 가격이나 크기 등은 결코 중요치 않다. 꽃을 만듦과 만끽하는 자연의 향기와 설렘 그리고 받는 이의 미소를 떠올리며 정성을 담은 것이 중요할 뿐이다. S

탐매探梅의 즐거움 The pleasure of viewing the Plum Blossoms

긴 겨울을 참아내고 마침내 꽃을 피워 제일 먼저 봄을 알리는 매화. 고고한 자태와 청아한 향기가 화폭에 가득하다. 매화의 아름다움에 취해 차오르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

에디터 윤연숙 도움 주신 곳 국립중앙박물관, 박어숙화랑

옛 선조들은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의 생태와 특성을 보고 군자君子를 떠올렸다. 이 네 가지 식물은 '사군자四君子'로 불리며 오랫동안 문학과 예술의 소재로 사랑받았다. 특히 매화는 사군자의 필두로 얼어붙은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눈 속에서 맑은 향기를 그윽하게 피워내어 선비의 곧은 지조와 고결한 성품을 상징하였다. 그리하여 옛 선비들은 매화를 주제로 시와 그림 그리기를 즐겼으며, 매화 문양이 새겨진 문방을 사용하고, 뜰에 매화를 심어 향시 가까이해 왔다. 화가 조희룡趙熙龍은 무척이나 매화를 사랑해, 평생 동안 매화를 그린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19세기 초 완성한 <홍백매화도紅白梅花圖>는 두 그루의 매화가 커다란 화면 전체에 펼쳐져 있는 병풍이다. 병풍 전면에 걸쳐 용이 솟구치듯 구불거리며 올라간 매화나무 줄기는 좌우로 긴 가지를 뻗어내는데, 흰 꽃송이와 붉은 꽃송이가 만발한 대작이다. 점점이 피어 있는 화려한 매화는 "은하수에서 쏟아져 내린 별 무늬와도 같고, 오색 빛깔 나부신羅浮山의 나비를 풀어놓은 것 같다"고 전해진다. 한국 팝아트의 대표 작가인 권기수는 동양적인 소재인 사군자와 선명한 원색 계열의 컬러, 일러스트 같은 서양적인 화법을 결합하여 회화는 물론 디지털 프린팅, 미디어 영상 등 다양한 작업을 선보인다. 사람을 의미하는 기호로 작가가 탄생시킨 캐릭터 '동구리'와 단순하고 간결하게 표현한 '매화'의 어우러짐은 동양과 서양, 디지털과 아날로그 등의 경계를 가볍게 허물며 발랄한 생기로 공간을 물들인다.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예술가의 남다른 매화 사랑은 봄을 맞는 즐거움을 더한다. S

The plum blossoms, which lay roots in frozen soils and diffuse clear scents in the snow, have been on top of Sagunja as a symbol of faith and integrity of the noble scholars. Many traditional scholars enjoyed writing about the plum blossoms, as well as drawing them, and used stationeries with plum blossom patterns. Artist Heeryong Cho, who was talented in poetry, calligraphy, and painting, loved plum blossoms so much that he drew them all his life. The "Hongbaekmehwado," which he completed in the early 19th Century, is a full-panel traditional screen with two plum trees spreading across the screen. The stems stretch long to both directions from the plum tree that meanders up the screen as an ascending dragon, while the white and red blossoms complete the masterpiece. Kisoo Kwon, who is one of the leading artists of Korean Pop Art, presents various artworks, including paintings, digital printing, and media videos, by combining the oriental materials of Sagunja with the western characteristics of vivid primary colors and illustrations. The harmony of 'Dongguri,' which is a character that he has created to represent mankind, and the simplified plum blossoms breaks down the boundaries of East and West. Meanwhile, he made use of both digital and analog methods to fill the spaces with colorful vitality. The artist's love for the plum blossoms beyond the past and the present brings pleasure to the arrival of the spring season.



<홍백매화도紅白梅花圖>, 조희룡, 종이에 엮은 채색, 각 폭 124.8x46.4cm, 19세기 조선 국립중앙박물관



<Reflection of the Moon-Golden>, 권기수, acrylic on canvas on board, 130x97cm, 2012



기억과 보존의 가치

사 진 가 김 현 식

오직 흑백 필름만 사용해 예전 방식 그대로 작업하는 물나무사진관의 김현식 대표.
 한국적인 사진의 맥을 이어가는 그가 내놓은 애장품은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자尺였다.
 지에는 그가 추구하는 철학과 맞닿아 있는 보이지 않는 기운이 서려 있다.

에디터 윤연숙 사진 김민은

시간의 흐름이 촘촘히 쌓인 북촌 계동길을 걷다 보면 전면 유리창에 '정통흑백사진관'이라는 글귀가 눈길을 끄는 물나무사진관을 만날 수 있다. 이곳에서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한국적인 사진이 탄생되고 있다. "일제 강점기 우리나라에 사진 기술이 들어오면서 일본의 기준에 따른 사진이 수용되었어요. 그래서 가정을 해보았어요. 조선 시대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진을 받아드렸다면 어땠을까. 그때 떠올렸던 것이 전신사조傳神寫照였어요. 초상화를 그릴 때 인물의 외형 재현뿐 아니라 정신까지 담아내는 전신사조를 실마리로 한국적인 사진을 정의하고 이미지를 모색해나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가치를 더해가는 사진에 내면을 전달하고 비춰내는 것. 김현식 대표가 잊혀져 가는 흑백 필름으로 촬영하고, 인화에서 마지막 완성까지 모두 예전 방식 그대로의 수작업을 고집하는 이유다. 이러한 김현식 대표의 애장품은 친한 지인에게 구매한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자尺이다. 그 옛날 우리의 고유한 척도가 있었는데 보통 한 자에 10치수(30~35cm)이고, 이를 기준으로 건축이 이뤄지고 지도가 만들어졌다.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 이미 지도를 제작하여 활용했고, 특히 고려시대 때부터 지도가 정확하게 그려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조선시대에는 동양 최고라 평가 받고 있는 세계지도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근대에는 우리나라의 지도조차 일본에 의해 제작되었어요. 분명 뛰어난 우리의 표현 방식과 기술이 있었는데 말이죠.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인 상황이 있었지만, 기억하고 보존해야 할 가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가치를 누군가는 알려나가야 하고요." 세상의 모든 것이 점차 디지털화되어감에 따라 디지털 이전의 아날로그 시대에 대한 모든 것은 그저 아련한 추억이 되고 말았다. 분명 우리는 아날로그 시대를 살았는데, 아날로그 시대에 대한 기록은 정작 그 이전인 조선 시대보다 연구하는 사람도 기록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 김현식 대표는 아날로그 시대, 즉 근대의 문화에 관심이 많다. "근대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는 사람은 드문 것 같아요. 이제는 편리하고 깨끗한 것이 있으니까 다 치워버린 것이죠. 디지털 시대에 태어나 디지털 시대에만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과 후손들이 근대에 대해 궁금해할 때 보여주고 이야기해줄 거리가 없어요.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존재하는 우리가 정리하고 보관하지 않으면 사라지고 말겠죠." 김현식 대표는 물나무사진관에서 촬영한 사람들에게 필름을 건네지 않고 사진관에 보관한다. 요즘의 디지털 사진들은 보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남기지 않는다. 그러나 필름으로 촬영한 사진은 손대지 못하는, 있는 그대로의 사람들 모습이다. 10년 후에는 여기서 촬영한 인상 사진들을 소장처를 정해 사료로 기증할 생각이다. 50년 또는 100년이 흐른 뒤, 후대 사람들이 2000년대 사람들을 보고 싶을 때 조각된 현실이 아닌 현재를 그대로 보여주려 하는 것이다. 그는 아날로그 사진 속에 담긴 가치, 우리가 보존해야 할 가치를 전하고 싶어한다. S

공간에 새긴 찬란한 빛의 순간들

별이 쏟아지는 밤 풍경이 너울너울 공간을 적신다. 강렬한 색채와 거침없는 붓 터치가 깊은 울림을 선사하는 음악과 상응하며 공간을 가득 메운다. 고흐와 미디어 아트의 만남은 거대한 감동으로 전율케 한다.

에디터 윤연숙 사진 김민은 도움 주신 곳 미디어엔아트

이제 예술은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삶의 모든 영역을 넘나들며 융합하고 결합되어 또 다른 예술을 낳고, 생활 속의 예술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미디어아트는 미디어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면서 기존의 장르 간, 분야 간 벽을 허물며 새로운 창의성의 근간이 되고 있다. 4월 17일까지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리는 반 고흐를 소재로 한 대형 미디어 아트 전시인 <반 고흐 인사이트: 빛과 음악의 축제>는 고흐와 19세기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을 캔버스가 아닌 '문화역서울284'의 각 공간에 부러놓았다. 1925년 준공 당시의 서울역사 모습으로 복원한 복합문화공간인 문화역서울284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역사적 공간이자 다양한 문화가 교차되는 상징적 장소다. 여전히 기차역으로서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공간이 많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반 고흐 인사이트>전은 이러한 공간의 특성을 활용해 총 네 개의 섹션으로 전시를 구성하고, 천장부터 바닥까지 온 공간을 3D 프로젝션 매핑으로 입체 캔버스화했다. 반 고흐를 비롯해 후기 인상파 화가 8인의 작품을 더해 총 400여 작품이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명화와 다큐멘터리가 접목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관객을 맞이한다.

그림이 탄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텍스트와 영상을 통해 친절하게 설명해주어 집중도를 높인다. 고흐가 살았던 당시의 시대 상황은 물론, 동생 테오와 주고받은 편지글 등을 작품 중간중간 보여주어 고흐의 삶과 인생 철학, 고민과 번뇌를 느낄 수 있으며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번 전시는 '빛과 음악의 축제'라는 부제처럼 영상과 음악의 조화가 예사롭지 않다. 각 공간의 벽면, 천장, 바닥에 설치된 다양한 크기의 스크린과 Full HD급 프로젝터를 통해 반 고흐를 비롯한 인상주의 화가들의 명작이 생생히 재현되었다. 최대한 원작에 근접한 색감과 질감을 살리는 첨단 이미지 작업과 바람 한 점, 꽃잎 하나하나가 흩날리는 영상 효과는 원작에서 얻을 수 없었던 감동을 전한다. 또한 문화역서울284 내부의 독특한 공명을 활용해 각 섹션 별 콘셉트에 최적화된 효과음과 배경음악으로 분위기와 감동을 극대화한다. 사운드가 또 하나의 작품이 되며 고흐가 느낀 희로애락의 감정선이 관객에게 그대로 전해지며 몽글한 순간을 경험하게 한다. <반 고흐 인사이트>전은 '뉘넨의 또 다른 해돋이', '파리의 화창한 어느



1 '뉘넨의 또 다른 해돋이' 섹션에서는 인상파 화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2 문화역서울284의 독특한 구조가 멋진 캔버스가 된 '파리의 화창한 어느 날' 섹션



날, '아를의 별이 빛나는 밤에', '오베르의 푸른 밀밭에서' 등 총 네 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처음 만나게 되는 '뤼넨의 또 다른 해돋이' 섹션은 파리 시민들의 밝고 여유로운 여가 생활과 근교 풍경 등을 그린 초기 인상주의 작품을 조명하는 동시에 인상주의의 시작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접목돼 있다. 르누아르의 <물랭 드 라 갈레트의 무도회>, 모네의 <양산을 쓴 여인>, 드가의 <발레 수업> 등 유명한 인상파 작품들이 다양한 높이에 위치한 여덟 개의 커브형 대형 스크린에 영사되어 보여진다. 각 캔버스 밑에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이 적혀 있어 리닝타임에 맞춰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 섹션인 '파리의 화장한 어느 날'은 볼거리와 들을거리가 많은 메인 공간. 12개의 석재 기둥과 돔으로 구성된 공간의 특수성을 활용하여 작품들이 절묘하게 펼쳐진다. 특히 일종의 병풍처럼 시폰으로 제작한 캔버스에 작품이 영사되는데, 캔버스의 질감이 느껴지면서 독특한 감흥을 불러일으킨다. 파리 시절 고흐는 쇠라의 점묘법과 일본 전

통 목판화인 우키요에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 공간에서는 점묘법의 작은 입자들을 소리로 치환해 작은 점들이 춤추는 듯한 영상으로, 작품이 어떤 방식으로 완성됐는지 상상의 여지를 준다. 세 번째 섹션 '아를의 별이 빛나는 밤에' 공간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고흐의 작품 <해바라기>, <자화상>, <꽃 핀 아몬드나무> 등을 만날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대작들은 고흐가 고갱과의 갈등으로 괴로워하며 혼란스럽고 위태로웠던 시기에 그려진 작품들이다. 이 섹션에서는 당시 고흐의 주요 활동지였던 아를과 생레미를 각각 24시간으로 구성된 작품 활동의 절정기였던 2년의 기간을 48시간으로 압축해 보여준다. 마지막 '오베르의 푸른 밀밭에서' 섹션은 고흐가 생레미 정신병원을 나와 오베르 쉬르 우아즈에 머물며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까지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위해 열정을 불태웠던 당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사운드에 가장 큰 공을 들인 공간으로 새가 지저귀는 소리, 풀벌레 소

리, 밀밭이 움직이는 소리를 곳곳에 숨겨놓아 마치 그림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전한다. 또 쓸쓸한 배경음악과 잠깐의 적막은 고흐의 비극적인 죽음을 담담하게 그려내는 동시에 애석한 마음이 들게 한다. <반 고흐 인사이드>전은 체험할 거리도 다채롭다. 미디어 컨버전스 전시답게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헤드셋인 오쿨러스 리프트, 기어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 등을 통해 반 고흐의 작품에 등장하는 아를의 카페를 체험하는 The Night Café, 관람객의 사진을 인상주의 명화로 전환시켜주는 솔루션인 Artify, 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 책자를 통해 명화에 대한 설명이 영상과 사운드로 제공되는 ART BOOK, 관람객이 직접 빛나는 이미지를 만들어보는 빛의 팔레트 등이 그것이다. <반 고흐 인사이드>전은 19세기 인상파의 그림을 근대의 역사 문화 장소에서, 21세기 기술로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전한다. 색다른 방법으로 반 고흐의 그림과 소통하는 순간을 선사할 것이다. S

- 1 시폰으로 제작한 캔버스에 비친 고흐의 자화상.
- 2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고흐의 작품이 사방의 공간에 영사되는 '아를의 별이 빛나는 밤에' 섹션.
- 3 오브제를 끼우며 나만의 빛 작품을 만들어볼 수 있는 빛의 팔레트.
- 4 '오베르의 푸른 밀밭에서' 섹션에서는 고흐의 마지막 작품과 이야기가 깊은 울림으로 전해진다.

초록빛으로 수놓은 공간 속에서 숨을 쉬다

작고 고요한 생물체가 황량하기 그지없던 집 안에 색다른 향기와 생기를 부여한다. 눈을 편안하게 하며 지쳐 있던 마음에 힐링의 기쁨을 전해주는 그린 데코 아이템들.

에디터 권자에 사진 김민은



모양이 다른 도형들을 조합한 시계는
맛잇한 벽 위에 포인트 소품으로 봄의
상큼함을 전달한다. 우드 소재의 벽시계는
폼리빙 by 에이치픽스.



조각보를 이어 붙어 만든 경쾌함이
돋보인다. 침실은 물론 거실 소파 위에
비슷한 컬러의 쿠션들과 매치하면 더욱
좋을 듯. 달빛단풍.



나만을 위한 티 테이블은 물론 예지 있는
사이드 테이블로도 훌륭하다. 마블
상판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한 라운딩
테이블은 핀치.

푸르름으로 가득한 자연 속에서 풍류의 멋과 더불어 인생의 이치를 깨달았던 선인들의 삶. 지금은 자연과 떨어진 콘크리트 속 삶을 살다 보니 녹음이 주는 진정한 생기와 경건함을 느끼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 안타까워할 필요 없습니다. 늘 생활하는 공간 속에 '푸르름'을 살포시 들여놓을 수 있으니까요. 집 안 구석구석 소담한 화분 식물을 배치하거나 나뭇잎, 꽃, 새 등 자연에서 모티프를 얻은 자연친화적 인테리어 소품들로 공간을 장식해보세요. 봄기운이 가득한 초록빛 인테리어 소품들은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와도 그 싱그러움을 오래도록 간직하기에 경제적이기도 합니다. 눈부시게 반짝이는 햇살과 어우러져 집 안 분위기까지 온화하게 해주는 소품들은 그릇을 비롯해 조명, 의자, 선반 등 다양하기에 취향에 따라 포인트 소품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채도와 명도가 다른, 다채로운 그린 컬러 소품들이 자연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며 생활 속에 여유를 선사할 것입니다. S

스타일리스트 황남주(뷰로 드 플로디아) 어시스턴트 이승원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의자로서의 기능
외에도 유니크한 톤과 디자인으로 공간
을 멋스럽게 만들어주는 레이저 커팅
스틸 체어는 핀치.



일부분을 둥글게 처리한 화병처럼 보이
지만 사용하는 이에 따라 용도가 달라진
다. 옷칠이 되어 있는 나무 컵은 정해조
작가 작품으로 KCDF갤러리.



삶의 주변 어디에서나 친근하게 보이는
야생의 들꽃. 청미래덩굴이 새겨진 백자
접시는 이꽃담 작가 작품으로
KCDF갤러리.



작가가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주름 디테일
에 시선을 빼앗긴다. 음식을 담거나 소품을
담거나, 아니면 그 자체로 예술작품인
면기는 이도.



힐링의 향기로 몸과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캔들은 청자상감 윤희문매병 모양으로
색다른 윤치까지 선사한다. NOO by
해브빈서울.



언제 어디서나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는
우리네 아이템. 보자기 안에 마음을 함께
담아 묶어 보낼 수 있는 줄노방 보자기는
호호당.



조각된 양이 손잡이로 달려 있는
도자 함 접시는 이세용 작가 작품으로
조은숙 아트앤라이프스타일갤러리.



보고 있으면 봄 향기가 피어오를 듯
완두콩 모양의 아카시아 세라믹
컨테이너와 트레이 세트는 김재연
작가 작품으로 해브빈서울.



그림감이 좋은 나무 손잡이가 달려
사용하기 편리한 옷칠 저그는 허명욱
작가 작품으로 조은숙 아트앤라이프
스타일갤러리.

한 알, 한 알 꿰어낸 우아함의 극치여라

구슬도 꿰어야 보배가 되듯 진주는 많을수록 화려함은 물론 우아함 역시 배가된다. 여러 개의 진주가 모여 때로는 단아하게, 때로는 농염하게 변신하는 진주 이야기.

에디터 권자에 사진 김민은



납작한 진주가 눈꽃처럼 달려 있는 나뭇잎 머리핀이는 김민휘 작가와 정재인 작가 작품으로 민휘아트 주얼리.



도자로 만들어 작가의 섬세한 감성이 돋보이는 브로치에 진주가 더해지며 우아한 기운을 뿜낸다. 작품명 '누보' 브로치는 정재인 작가 작품으로 민휘아트 주얼리.



각각 다른 크기의 진주를 엮어 제작한 목걸이는 김민휘 작가와 정재인 작가 작품으로 모노톤의 의상과 잘 어울린다. 민휘아트 주얼리.

은은하게 맴도는 듯 빛나는 광택으로 다이아몬드의 반짝임보다도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진주입니다. 고운 우윳빛의 반짝임을 간직한 진주는 동서양 여성들의 보석함에 하나씩은 자리한 품격의 보석이었습니다. 옛 궁중에서 중요한 의식이 있는 날이면 왕비를 비롯한 상류층 여인들이 가체에 진주가 달린 떨잠으로 멋스럽게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진주에서 느껴지는 신비한 광채와 감출 수 없는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분위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을 매료시켜왔습니다. 단조로운 패션에 여성스럽고 우아한 분위기를 더하고 싶다면 진주 장식의 장신구를 이용해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크기가 같은 진주가 정갈하게 이어진 목걸이는 심플한 정장이나 원피스와 함께 착용할 때 가장 돋보입니다. 진주 주얼리 본연의 고급스러움을 강조하려면 진주 목걸이 하나만 착용하거나, 크기가 비슷한 진주 반지를 더하는 것이 좋고, 이때 옷의 색상도 모노톤으로 맞춘다면 더욱 정갈한 스타일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S

스타일리스트 황남주(뷰로 드 끌로디아) 어시스턴트 이승원



입체적인 구조로 디자인된 감각이 돋보인다. 진주와 퍼 장식 투 톤 컬러의 실버 팔찌는 노경주 작가 작품으로 KCDF갤러리.



세 개의 가는 버드나무 잎들이 한데 모여 작고 유니크한 브로치를 탄생시켰다. 심플한 슈트 위에 포인트 액세서리로 제격. KCDF갤러리.



브로치 하나만으로 화려함을 마음껏 뽐낼 수 있다. 진주가 영롱하게 핀 꽃 브로치는 김민휘 작가와 정재인 작가 작품으로 민휘아트 주얼리.



통통 튀는 경쾌한 스프링과 담수 진주와의 만남이 돋보이는 브로치는 모든 스타일에 잘 어울린다. 백자현 작가 작품.



미치 나팔꽃을 연상시키는 플라워 모티프의 반지는 실버 소재와 진주 오브제가 만나 우아하고도 시크한 무드로 연출한다. 박보영 작가 작품.



톡톡 떨어지는 빗방울을 진주로 표현 볼륨감이 살아 있는 볼드한 골드 밴글은 김시라 작가 작품으로 먼데이 에디션.



짙은 색감의 꽃잎 모양으로 입체감이 살아 있는 반지는 빛나는 진주를 포인트로 영롱한 느낌을 업그레이드시켜준다. 박보영 작가 작품.



작은 반지 안에서 또 다른 작은 우주가 펼쳐진 듯한 스프링 리본 장식 골드 반지는 백자현 작가 작품.



미치 나뭇가지 위에 진주가 달린 듯 유연함이 돋보이는 진주 머리핀이는 김민휘 작가와 정재인 작가 작품으로 민휘아트 주얼리.

연매출 1조 달성, 열정과 집념의 결실 Annual revenue of 1 Billion USD, the product of dedication and tenacity

아시아의 미와 가치를 담은 설화수가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국내 뷰티 브랜드 최초로 연매출 1조원을 달성한 것.
온 마음을 담은 정성과 끊임없는 노력은 전 세계의 여심을 사로잡았다.

에디터 윤연숙



설화수의 연매출 1조원 달성은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브랜드라는 명성에 걸맞게 국내외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과를 이룩한 쾌거여서 그 의미가 크다. 설화수는 단순히 상품을 넘어 아시아의 지혜와 철학을 담아 '한방 뷰티'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를 개척했을 뿐만 아니라, 한류 뷰티의 기틀을 세워 꽃피우고 있다. 2015년 국내 뷰티 브랜드로서 연매출 1조원을 기록한 것은 설화수가 유일하다. 설화수는 2004년 홍콩을 시작으로 2010년 미국, 2011년 중국, 2012년 싱가포르·대만·태국, 2013년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인도네시아에 차례로 진출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설화수는 작년 한 해 국내 시장에서 40퍼센트에 가까운 성장은 물론, 2005년부터 10년 연속 국내 백화점 매출 1위 수성, 해외 진출 10개국에서 고르게 선전하며 이번 성과를 이뤄냈다. 설화수는 이를 바탕으로 2016년 아시아 시장 1위 브랜드, 2020년 세계 시장 Top 7 브랜드로 거듭나고자 글로벌 성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더불어 고객의 신뢰와 지지가 없는 브랜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않고, 국내와 해외 소비자들 모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모자람 없는 마음으로 진정성을 담은 활동을 통해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의 가치를 전하나갈 설화수의 행보가 기대된다. S

Sulwhasoo's significant accomplishment of 1 billion USD in annual revenue is based on its current business stability in Korea and around the world as a global brand representing Korea. Beyond mere supply of products, Sulwhasoo has explored a new category regarding Asian medicinal herbs and beauty products utilizing Asian wisdom and philosophy, as well as creating K-Beauty products based on a solid foundation. In 2015, Sulwhasoo is the one and only Korean brand that has recorded a yearly revenue of 1 billion USD in the beauty industry. Starting with Hong Kong in 2004, Sulwhasoo has opened its stores in the U.S. in 2010, China in 2011, Singapore, Taiwan, and Thailand in 2012, and Malaysia, Vietnam, and Indonesia in 2013 in order to hasten its pursuit of global market expansion. Sulwhasoo achieved a growth close to 40% in the Korean market and it has reached the highest revenue in department stores for 10 consecutive years since 2005. Its business has steadily flourished in 10 countries worldwide. Based on these records, Sulwhasoo is planning to expand its global growth in order to become Asia's No. 1 brand in 2016, as well as one of the world's Top 7 brands by 2020. Never forgetting that a brand cannot survive without its customers' trust and support, it will present innovative products that can impress both local and overseas consumers. Sulwhasoo will continue to spread the value of a global luxury beauty brand through its consumer brand-related activities.



<Sulwhasoo> 독자 선물

뮤지컬 <마타하리>를 관람할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드립니다. 독자 영서를 이용해 응모 가능하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98p 독자 선물 지면을 참조하세요.

매혹적인 무대가 펼쳐진다, 뮤지컬 <마타하리>

세계 최정상 크리에이티브와 대한민국 명품 제작진이 만나 초대형 창작 뮤지컬이 탄생했다. 아름다운 무희, 마타하리의 드라마틱한 실화를 바탕으로 19세기 말 화려했던 파리 몰랑루즈의 무대가 생생하게 재현된다.

뮤지컬 <마타하리>는 제1차 세계대전 중 이중 스파이 혐의로 프랑스 당국에 체포되어 총살당한 마타하리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모차르트>, <엘리자벳>, <레베카> 등 대형 라이선스 뮤지컬을 국내에 소개해온 EMK뮤지컬컴퍼니에서 처음 선보이는 창작 뮤지컬이다. 제작 단계부터 세계 시장을 목표로 삼은 뮤지컬로, 브로드웨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출가 제프 갈훈과 프랭크 와일드혼, 제이스 하울랜드가 각각 작곡·작사가로 <마타하리>의 대본과 음악 작업을 함께했다. 또 옥주현, 김소향, 류정환, 김준현, 신성록, 엄기준, 송창의, 빅스의 멤버 레오가 캐스팅을 확정 지으며 더욱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또 파리의 음악 홀 몰랑루즈를 재현한 아름다운 무대는 물론 약 200여 명의 의상으로 유럽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벨 에포크 시대의 복식과 문화를 선보인다. 사교계의 꽃으로 활약했던 마타하리의 춤과 드라마틱한 인생을 극적으로 펼쳐보일 <마타하리>. 매혹적인 무대와 깊은 감동으로 찾아올 준비를 마쳤다. **일시** 3월 25일~6월 12일 **장소**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 문의 1577-6478



클라라 주미 강&콜른 챔버 오케스트라

세계 무대에서 활약 중인 스타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이 굵직한 내한 무대에서 멋진 협연을 펼친다. 지휘자 크리스토프 포펜이 지휘봉을 잡고, 그의 제자 클라라 주미 강이 합류해 독일 바로크와 고전주의의 진수를 한국 팬에게 전한다.

독일 최고(最古)의 챔버 오케스트라로 통하는 '콜른 챔버 오케스트라'가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펼치는 첫 내한공연에 클라라 주미 강이 협연자로 나선다. 과거 바로크-고전주의 시대의 편성(20~30명 규모)을 지향하는 콜른 챔버(1923년 창단)는 100명 규모의 '풀 편성 오케스트라'에서는 맛보기 힘든 소박하면서 정밀한 앙상블을 자랑한다. 이번 내한에는 2014년 콜른 챔버 음악감독으로 부임한 대표적인 친한파 지휘자 크리스토프 포펜이 지휘봉을 잡는다. 바이올리니스트 출신의 포펜은 바이올린 독주자를 시작으로 듀오, 트리오, 4중주의 리더와 챔버 오케스트라, 풀 편성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음악감독)로서 음악 경력을 이어오고 있다. 주미 강은 그의 제자이며,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한국의 현악 4중주단 '노부스 콰르텟'도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이날 1부는 하이든의 심포니 중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교향곡 제44번으로 포문을 연다. 챔버 오케스트라만의 섬세함과 고전주의의 아름다움을 선보일 모차르트의 후기 교향곡 중 보석 같은 명곡 제29번이 피날레다. **일시** 4월 30일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문의 02-552-2505

뮤지컬 <맘미아>



뮤지컬 <맘미아>는 아바(ABBA)의 음악을 모녀의 사랑, 친구와의 우정 그리고 남녀간의 사랑 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로 완벽하게 엮어낸 작품이다. 이번 <맘미아>는 더 강력해진 캐스팅과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재미와 감동을 선사한다. **일시** ~6월 4일 **장소** 사롯데시어터 문의 02-577-1987

뮤지컬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인간적 고뇌를 묘사한 작품으로 모차르트가 후원자인 대주교의 억압에서 벗어나 음악 여행을 떠나는 시점부터 사랑, 절망, 성공, 죽음에 이르기까지를 그린다. 이번 공연은 프랑스 오리지널 공연 팀이 내한해 펼치는 무대이다. **일시** 3월 11일~4월 24일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문의 02-541-6236

공연 <마스터 클래스>



오페라 가수 마리아 칼라스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마스터 클래스>는 1996년 '토니아워즈 최우수 희곡상'을 받은 역작이다. 특히 연극 40주년 기념 공연을 펼치는 윤석화는 1998년 이 작품을 통해 배우로서 다시 한 번 일어설 수 있는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한다. **일시** 3월 10~20일 **장소** LG아트센터 문의 1544-1555

책 <초판본 사슴>



시인 윤동주가 필사하고 당대의 시인들이 가장 소장하고 싶어했던 시집 1936년 한지에 인쇄, 전통 자루매 기 양장 제본으로 오직 100부만 발행했던 백석의 시집 <사슴>이 원본 활자의 느낌을 고스란히 살려 출간됐다. <사슴>은 문학이 살아 숨 쉬던 시절, 시대를 노래한 시인들의 세계로 안내한다. **지은이** 백석 **출판사** 소와 다리

전시 <루벤스와 세기의 거장들>



유럽 왕립 박물관 중 하나인 리히텐슈타인박물관의 소장품 약 120여 점이 국내 최초로 전시된다. 이들이 수집한 미술품은 유럽 왕실 박물관 중에서도 손꼽히는 명작들로, 르네상스부터 바로크, 근대 비디미어 시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별 명작이 포함됐다. **일시** ~4월 10일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 문의 1688-9891

전시 <아홉 개의 빛, 아홉 개의 감성>



디지털의 개관 특별전, 조명 예술을 뜻하는 라이트 아트의 거장 카를로스 크루즈-디에즈를 비롯해 설치, 조각, 영상, 사운드,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이 모여 9개의 독립적인 방을 빛의 공간으로 구성해 9개의 감성을 보여주는 이색 전시다. **일시** ~5월 8일 **장소** 디뮤지엄(D MUSEUM) 문의 070-5097-0020

Sulwhasoo 아름다움을 완성하는 설화수 제품들

클렌징 라인

궁중비누
홍삼 성분을 원료로 정성스레 숙성시켜 피부 영양을 유지해 주는 고급 클렌징 비누
100g x 2 | 42,000원대

순행클렌징오일
산뜻한 사용감의 오일 이 얼굴에 부드럽게 롤링되는 저자극 클렌징 오일
200ml | 40,000원대

순행클렌징폼
피부 노폐물을 말끔히 없애고 피부의 촉촉함은 유지해주는 저자극 클렌징 폼
200ml | 35,000원대

에센셜 라인

윤조에센스
자음단*이 건강한 피부 윤기를 선사하는 첫 단계 에센스
60ml | 90,000원대
90ml | 120,000원대

자음수
깊은 흡수력으로 피부를 촉촉히 적셔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젤 타입 스킨
125ml | 57,000원대

자음유액
매끄럽게 펴 발리고 알뜰히 흡수되어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소프트 로션
125ml | 63,000원대

윤결에센스
피부를 촉촉히 가꾸어 매끈하고 단정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피부 결 정리 에센스
50ml | 125,000원대

섬리안크림
눈가 피부에 얇게 밀착되어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주름 개선 아이크림
25ml | 115,000원대

탄력크림
지산체**가 피부를 지지하는 힘을 높여 탄탄한 피부로 가꿔주는 탄력강화크림
75ml | 105,000원대

스페셜 라인

미안피니셔
앞서 바른 성분의 효능은 오히려 피부에 부담을 주며 윤기 보호막을 형성하는 스킨케어 피니셔
80ml | 90,000원대

소선보크림
(SPF 40 / SPF 30 / PA++)
빛과 적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안티에이징 데이크림
50ml | 150,000원대

에소침크림&패치
입가 팔자 부위를 탄력 있게 케어해주는 크림&패치
25ml(크림)+10개(패치) | 200,000원대

명일본초앰플
명인진* 성분이 피부 본연의 방어력을 강화해주는 고농축 앰플
7ml x 5 | 200,000원대

자정 라인

자정클렌징폼
피부 자극 없이 노폐물을 말끔히 제거해주는 깨끗하고 환한 안색을 선사하는 클렌징 폼
150ml | 40,000원대

자정스크럽젤
백상 파우더가 포함된 젤 포물리가 맑고 매끈한 피부로 가꿔주는 브라이트닝 스크럽 젤
100ml | 55,000원대

자정수
피부를 촉촉하고 깨끗하게 정돈해주는 미백 효능을 끌어올려주는 젤 타입 미백 스킨
125ml | 65,000원대

자정수액
피부 위로 촉촉함이 부드럽게 퍼져 맑은 안색을 선사해주는 미백 로션
125ml | 70,000원대

자정미백에센스
백상 미백 성분이 맑고 투명한 어린 피부 빛을 끌어올려주는 브라이트닝 에센스
50ml | 210,000원대

자정미백스팟트리트먼트
기미·집티 생성을 억제하고 주변 유발 환경까지 케어하는 국소 부위용 스팟 트리트먼트
25ml | 130,000원대

자정미백아이트리트먼트
쿨링 자카 아몰리케이드와 매끄러운 텍스처가 눈가를 환하게 밝혀주는 미백 아이트리트먼트
15ml | 75,000원대

자정미백크림
브라이트닝 활성 성분이 촉촉하게 빛나고 투명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브라이트닝 크림
50ml | 135,000원대

자정미백마스크
고밀착 시트가 즉각적으로 맑은 안색과 탄력감을 선사해주는 브라이트닝 마스크
5매 | 65,000원대

상백크림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을 예방해줄 뿐 아니라 잡티 없이 깨끗한 피부로 가꾸어 주는 미백 스크림
40ml | 75,000원대

어민에센스
피부 밀도를 조밀하게 가꿔주는 초기 안티에이징 에센스
50ml | 130,000원대

어민마스크
젤레 열매 발효 성분이 피부를 단단히 여겨주는 안티에이징 마스크
5매 | 40,000원대

어민 라인

자음생진분유
인삼 중차유가 빠르게 흡수되어 극심한 피부 건조를 해소하는 고농축 에센스 오일
20ml | 120,000원대

자음생아이크림
인삼 기능성 성분이 도뫄하고 함입는 눈매로 가꾸어주는 아이크림
25ml | 180,000원대

자음생크림
인삼 결정체가 노화의 징후를 다스리는 인삼 안티에이징 크림
60ml | 230,000원대

자음생/자어진 라인

자음생크림
시원한 자작나무 수액이 피부를 편안하게 가꿔주는 수분 크림
50ml | 90,000원대

수울선크림
(SPF 50+ / PA+++)
바르는 즉시 촉촉한 수분감이 느껴지는 수분 선크림
50ml | 55,000원대

수울미스트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여 피부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미스트
100ml | 42,000원대

수울 라인

동백윤모오일
천연 유래 동백 오일이 끈적임 없이 자연스러운 윤기를 선사하는 헤어 오일
100ml | 35,000원대

에센셜밤
홍화의 고농축 보습 성분이 피부를 촉촉하고 윤기나게 가꾸어주는 멀티 보습 밤
100ml | 35,000원대

연성바디크림
노화로 인해 초트러진 피부를 탄력 있게 가꾸어 주는 고보습 인티에이징 바디크림
200ml | 80,000원대

바디 & 헤어

진설수
적응 성분이 즉각 흡수되어 깊이 있는 촉촉함을 선사하는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스킨
125ml | 110,000원대

진설유액
적응 성분이 피부 결을 매끈하고 유연하게 가꾸는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에일전
125ml | 120,000원대

진설에센스
피부 방어력을 높이고 생기를 일깨우는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에센스
50ml | 330,000원대

진설아이크림
적응의 생명력으로 눈가 피부를 탄력 있게 다스리는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아이크림
25ml | 270,000원대

진설크림
새월의 흔적을 이겨내고 한결 같은 젊은 피부를 선사하는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크림
60ml | 450,000원대

다함설크림
단성과 홍심이 젊음의 에너지를 선사하는 피부 강화 리서치 토달 안티에이징 크림
60ml | 650,000원대

청운수딩팩
즉각적인 청명감을 제공하여 피부 진정 효과를 주는 청매실 성분 함유 수딩 팩
80ml | 42,000원대

우유팩
묵은 각질과 노폐물을 제거하여 매끈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필 오프 타입 팩
150ml | 42,000원대

다함설 라인

우유 라인

여운팩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여 다음 날 아침 피부 윤기가 되살아나게 도와주는 수면 팩
120ml | 52,000원대

예율마사지크림
자신 피부에 영양과 활력을 제공하여 피부 스트레스를 진정시켜주는 마사지 크림
180ml | 75,000원대

MEN

리프레싱클렌징폼
찬연 파우더 성분과 조밀한 거품의 데일리 스크럽 겸용 클렌징
150ml | 30,000원대

본윤에센스
주름, 탄력, 칙칙함을 케어해주는 워터 젤 타입의 안티에이징 에센스
140ml | 73,000원대

본윤유액
남성 피부 장벽 강화 및 외부 자극에 의한 피부 손상을 케어해주는 고보습 안티에이징 로션
90ml | 52,000원대

본윤크림
피부 노화를 완화하는 인삼수 오일 성분의 고보습 안티에이징 크림
40ml | 90,000원대

정양선크림
(SPF 50+ / PA+++)
자외선과 유해환경으로부터 남성 피부를 보호하는 선크림
50ml | 40,000원대

쿠션
11호 페일 핑크, 13호 라이트 핑크, 21호 미디엄 핑크, 23호 미디엄 베이지, 25호 딥 베이지, 33호 디크 베이지

퍼펙팅쿠션
(SPF 50+ / PA+++)
탄탄한 커버력으로 잡티 없이 윤기를 선사하는 쿠션 파운데이션
15g x 2 | 60,000원대 (리필 25,000원대)

퍼펙팅쿠션 브라이트닝
(SPF 50+ / PA+++)
묵연 추출물이 화사하게 해주는 브라이트닝 쿠션
15g x 2 | 65,000원대 (리필 30,000원대)

메이크업밸런서
1호 라이트 핑크, 2호 라이트 베이지

메이크업밸런서
(SPF 25 / PA++)
유·수분, 피부 힘·톤·결을 밸런싱하는 메이크업밸런서
35ml | 60,000원대

CC
1호 핑크 베이지, 2호 미디엄 베이지

CC유액
(SPF 34 / PA++)
매끈한 도자기 피부결로 도포되는 파운데이션
35ml | 60,000원대

채담 메이크업
1호 핑크 베이지, 2호 미디엄 베이지, 3호 살구 베이지

채담 스무딩파운데이션
(SPF 25 / PA++)
감싸안듯 부드럽게 도포되는 파운데이션
30ml | 55,000원대

채담 스무딩팩트
(SPF 25 / PA++)
자연스러운 화사함을 하루 종일 지켜주는 팩트
10g | 60,000원대 (리필 45,000원대)

자정 메이크업
1호 화사한 색, 2호 자연스러운 색

자정 에센스비비
(SPF 50+ / PA+++)
하루 종일 밝고 화사한 피부를 유지시켜주는 화이트닝 BB
30ml | 60,000원대

자정 미백UV팩트
(SPF 50+ / PA+++)
자외선과 유해환경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화이트닝 팩트
9g | 60,000원대 (리필 45,000원대)

에서 메이크업
21호 은은한 색, 23호 차분한 색

에서 파운데이션
(리퀴드) (SPF 15 / PA+)
3중 보호막으로 촉촉하게 커버하는 파운데이션
30ml | 53,000원대

에서 스킨케어
(SPF 25 / PA++)
크리미한 텍스처의 케이크 타입 파운데이션
14g | 58,000원대 (리필 42,000원대)

에서 트윈케이크
(SPF 30 / PA+++)
담담함 없이 커버해주는 트윈케이크
11g | 58,000원대 (리필 42,000원대)

에서 파우더
성세한 파우더가 화사한 톤으로 가꿔주는 파우더
30g | 58,000원대 (리필 42,000원대)

진설 메이크업
21호 은은한 색, 23호 차분한 색

진설 율메이크업크림
3가지 빛깔의 보석 파우더가 피부에 윤기를 표현하는 메이크업 크림
30ml | 90,000원대

진설 율파운데이션
(SPF 25 / PA++)
피부 표면에 촉촉하게 밀착되는 프리미엄 파운데이션
30ml | 90,000원대

진설 율팩트
영양 파우더가 화사함과 윤기를 표현해주는 프리미엄 팩트
13.5g | 110,000원대 (리필 80,000원대)

블루미네이팅
21호 미디엄 핑크, 23호 미디엄 베이지, 25호 딥 베이지, 33호 디크 베이지

블루미네이팅파운데이션
(SPF 35 / PA++)
블루미네이팅 바론 듯 피부를 탄력 있게 케어하는 블루미네이팅 파운데이션
30g | 80,000원대

블루미네이팅 팩트
(SPF 32 / PA+++)
투명하고 화사한 피부로 연출해주는 파우더 팩트
10g | 65,000원대 (리필 48,000원대)

레이디스 블러셔
1호 핑크 하모니, 2호 코랄 하모니

레이디스 블러셔
자연스럽게 화사한 핑크와 윤기 있는 피부 빛을 더해주는 멀티 컬러 블러셔
10g | 60,000원대

립
1호 에프리카리 세럼, 2호 블러범 세럼, 3호 플라워 립크, 4호 로즈 레드, 5호 블러범 코랄

에센셜 립세럼 스틱
고보습 보호막으로 생기 있고 탄력 넘치는 입술로 가꿔주는 데일리 립 케어
3g | 40,000원대

설화수를 사랑하는 독자를 위한 특별한 선물



자정미백에센스(4명)

설화수의 독자적인 미백 성분인 백삼의 효능이 가득한 자정미백에센스는 피부에 맑고 투명한 어린 빛을 선사합니다.



뮤지컬 <마타하리> 관람권(4명)

매력적이고 화려한 무대가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뮤지컬 <마타하리>의 관람권을 4명(1인 2매)께 드립니다. (티켓 수령은 추후 당첨자 개별 공지)

(주)아모레퍼시픽 설화수 VIP 고객을 위한 고품격 매거진 <Sulwhasoo>는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여성 생활 문화지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언제나 독자와 가까운 자리에 서 있고 독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독자엽서에 내용을 적어 <Sulwhasoo> 편집부 앞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내용은 알찬 기사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칭찬보다 신선한 아이디어 제안과 따끔한 질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자엽서를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응모 방법 <Sulwhasoo> 내의 독자엽서로 우편을 이용해 응모
- 응모 마감 2016년 4월 15일까지
- 중정 선물 설화수 자정미백에센스, 뮤지컬 <마타하리> 관람권
- 당첨자 발표 3/4월호 독자 선물 당첨지란 참조

2016년 1/2월호 독자 선물 당첨자 명단

설화수 진설아이크림(3명)

- 구순애 경남 창원시 진해구
- 이옥이 부산 부산진구 성지곡로
- 정향숙 충남 예산군 예산읍

르크루제 쿠키нг 클래스(3명)

- 박성민 경기 성남시 분당구
- 우경혜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1길
- 황보연 서울 마포구 도화동

2016년 1/2월호 당첨자 선물은 3월 30일까지 보내드립니다.



피부 속 빛을 밝히는 백삼의 힘으로 마침내, 맑고 투명한 빛으로 가득 차다

설화수 자정미백에센스

나이 들면서 점점 칙칙해지는 피부, 멜라닌 케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탄력까지 살리고 맑고 환한 빛을 채워주는 설화수 자정미백에센스. 귀한 백삼 성분이 피부 속 탄력을 채워 꺼진 피부에 생기는 그림자를 밀어내고 칙칙한 피부톤과 잡티를 개선시켜 보다 생기 어린 피부를 완성합니다. 맑고 투명한 빛으로 온종일 생기있게 빛나는 얼굴을 만나보세요.

〈설화수 전국 매장〉

SPA

설화수 스파 롯데호텔서울 3~4층 02-318-6121

백화점

서울특별시

- 롯데백화점 본점 02-772-3148
- 롯데백화점 잠실점 02-2143-7192
- 롯데백화점 강남점 02-531-2165
-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02-2164-5029
-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02-3707-1129
- 롯데백화점 관악점 02-3289-8140
- 롯데백화점 노원점 02-950-2152
- 롯데백화점 미아점 02-944-2046
- 롯데백화점 스타시티점 02-2218-3116
- 롯데백화점 월드컵점 02-3213-2056
- 롯데백화점 김포점 02-6116-3150
- 현대백화점 본점 02-3438-6072
-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02-3467-8614
- 현대백화점 신촌점 02-3145-2114
- 현대백화점 미아점 02-2117-1147
- 현대백화점 천호점 02-2225-7184
- 현대백화점 목동점 02-2163-1171
- 신세계백화점 본점 02-310-5081
-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02-3479-1265
-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02-2639-4122
- 갤러리아백화점 압구정점 02-6905-3360
- 아이파크백화점 02-2012-4179
-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 02-2211-0148
- AK플라자백화점 구로본점 02-852-6136

인천광역시, 경기도

- 롯데백화점 인천점 032-450-2140
- 롯데백화점 부평점 032-452-2175
- 롯데백화점 안산점 031-412-7748
- 롯데백화점 평촌점 031-8086-9159
- 롯데백화점 수원점 031-8066-0157
- 롯데백화점 분당점 031-738-2172
- 롯데백화점 일산점 031-909-3224
- 롯데백화점 인양점 031-463-2147
- 롯데백화점 구리점 031-550-7912
- 롯데백화점 중동점 032-320-7135
- 현대백화점 중동점 032-623-2136
- 현대백화점 판교점 031-5170-2110
- 현대백화점 킨텍스점 031-822-3140
-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032-430-1479
-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031-695-1282
-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031-8082-0343
- 갤러리아백화점 수원점 031-237-9890
- AK플라자백화점 분당점 031-709-9694
- AK플라자백화점 수원점 031-240-1152
- AK플라자백화점 평택점 031-646-6130

부산광역시

- 롯데백화점 부산점 051-805-0484
- 롯데백화점 동래점 051-552-4118
-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051-730-3183
- 롯데백화점 광복점 051-678-3166
- 현대백화점 부산점 051-667-0140
-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051-745-2296

울산광역시

- 롯데백화점 울산점 052-258-5784
- 현대백화점 울산점 052-228-0116
- 현대백화점 울산동구점 052-250-4173

대구광역시

- (주)대구백화점 본점 053-428-2961
- (주)대구백화점 프라자점 053-426-6036
- 롯데백화점 대구점 053-660-3054
- 롯데백화점 상인점 053-258-3106
- 현대백화점 대구점 053-245-2125
- 동아백화점 수성점 053-781-9295

광주광역시, 전라도

- 롯데백화점 광주점 062-221-1139
- 신세계백화점 광주점 062-368-6764
- 롯데백화점 진주점 063-289-3176
- 뉴코아아울렛 순천점 061-720-5151

경상도

- 롯데백화점 창원점 055-279-3116
- 롯데백화점 마산점 055-240-5193
- 롯데백화점 포항점 054-230-1190
- 신세계백화점 마산점 055-240-1263
- 갤러리아백화점 진주점 055-791-1165
- 디큐브백화점 거제점 055-680-0145
- 동아백화점 구미점 054-455-6399

강원도, 충청도

- 엠백화점 춘천점 033-257-4129
- AK플라자백화점 원주점 033-811-5502
- 갤러리아백화점 센터시티점 041-552-3358
- 신세계백화점 충청점 041-640-5017
- 롯데백화점 청주점 043-219-9219
- 현대백화점 충청점 043-909-4124
- 롯데백화점 대전점 042-528-3320
-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 042-488-5650
- 세이백화점 042-256-0198

통합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 □ □ □ □

우편요금
수취인 부담

발송 유효 기간
2010. 9.1~2017. 9.1

서울 마포우체국
승인 제210호

받는 사람

서울시 마포우체국 사서함 117호

〈Sulwhasoo〉 담당자 앞

전화: 080-023-5454(수신자 요금 부담)

□ 0 □ 4 □ 1 □ 5 □ 6

Sulwhasoo



아모레퍼시픽 설화수의 <Sulwhasoo>는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보내주신 고객님의 의견은 <Sulwhasoo>를 만드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설문에 응해주신 고객님께는 추첨을 통해 정성껏 마련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1. 펼치다

| | | | | | | | | | |
|----------------|-------|---|---|---|---|---|---|---|--------|
| 품격 있는 삶(8p) | 매우 만족 | 7 | 6 | 5 | 4 | 3 | 2 | 1 | 매우 불만족 |
| 피부 섬기기(12p) | 매우 만족 | 7 | 6 | 5 | 4 | 3 | 2 | 1 | 매우 불만족 |
| 동서고금이 만나다(16p) | 매우 만족 | 7 | 6 | 5 | 4 | 3 | 2 | 1 | 매우 불만족 |
| 新 공간을 보다(22p) | 매우 만족 | 7 | 6 | 5 | 4 | 3 | 2 | 1 | 매우 불만족 |
| 건너다(28p) | 매우 만족 | 7 | 6 | 5 | 4 | 3 | 2 | 1 | 매우 불만족 |

2. 누리다

| | | | | | | | | | |
|---------------|-------|---|---|---|---|---|---|---|--------|
| 설화인(36p) | 매우 만족 | 7 | 6 | 5 | 4 | 3 | 2 | 1 | 매우 불만족 |
| 어우러지다(44p) | 매우 만족 | 7 | 6 | 5 | 4 | 3 | 2 | 1 | 매우 불만족 |
| 설화풍경(50p) | 매우 만족 | 7 | 6 | 5 | 4 | 3 | 2 | 1 | 매우 불만족 |
| 설화보감(54p) | 매우 만족 | 7 | 6 | 5 | 4 | 3 | 2 | 1 | 매우 불만족 |
| 아름다운 기행(60p) | 매우 만족 | 7 | 6 | 5 | 4 | 3 | 2 | 1 | 매우 불만족 |
| 설화수를 말하다(66p) | 매우 만족 | 7 | 6 | 5 | 4 | 3 | 2 | 1 | 매우 불만족 |

3. 익히다

| | | | | | | | | | |
|--------------|-------|---|---|---|---|---|---|---|--------|
| 배움의 기쁨(76p) | 매우 만족 | 7 | 6 | 5 | 4 | 3 | 2 | 1 | 매우 불만족 |
| 한국의 멋(80p) | 매우 만족 | 7 | 6 | 5 | 4 | 3 | 2 | 1 | 매우 불만족 |
| 설화애장(82p) | 매우 만족 | 7 | 6 | 5 | 4 | 3 | 2 | 1 | 매우 불만족 |
| 읽다(84p) | 매우 만족 | 7 | 6 | 5 | 4 | 3 | 2 | 1 | 매우 불만족 |
| 집 안 단장(88p) | 매우 만족 | 7 | 6 | 5 | 4 | 3 | 2 | 1 | 매우 불만족 |
| 몸 단장(90p) | 매우 만족 | 7 | 6 | 5 | 4 | 3 | 2 | 1 | 매우 불만족 |
| 설화 히스토리(92p) | 매우 만족 | 7 | 6 | 5 | 4 | 3 | 2 | 1 | 매우 불만족 |

+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1. 다음 호 <Sulwhasoo>에 더 적극적으로 실었으면 하는 기사는? (해당 칸에 모두 체크해주세요)

- 상품 정보 제품 미용법 요리, 인테리어 및 패션
 공연, 전시 및 문화 정보 풍경 및 여행지 인물 인터뷰
 기타 _____

2. 다음 중 받고 싶은 선물 1개를 선택해주세요. (98p 참조)

- 설화수 자정미백에센스 뮤지컬<마타하리> 관람권
 이름 _____ 성별 남 여 나이 _____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선물에 당첨되면 해당란에 적어주신 주소 및 전화번호로 개별 연락 드립니다)

+ <Sulwhasoo>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던 부분과 불만스러웠던 부분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면세점

- 롯데 부산 면세점 051-810-3879
- 롯데 소공 면세점 02-759-6662
- 롯데 인천 면세점 032-743-2422
- 롯데 인천 탑승동 032-743-7947
- 롯데 잠실 면세점 02-3213-3865~6
- 롯데 제주 면세점 064-793-3138
- 롯데 코엑스 면세점 02-3484-9655
- 신라 면세점 02-2230-3597
- 신라 인천 면세점 032-743-4488
- 신라 아이파크 면세점 02-490-3351
- 신라 김포 면세점 02-2661-3216
- 제주 신라 면세점 064-710-7324
- 신세계 김해공항 면세점 051-970-2743
- 신세계 면세점 051-749-1448
- 한화 제주공항 면세점 064-740-0144
- 한화 면세점 02-2136-2779
- 워커힐 면세점 02-455-7665
- 동화 면세점 02-399-3123
- 삼익 면세점 032-743-0543
- 에스엠 인천 면세점 032-743-1570
- 에스엠 면세점 02-2120-6210
- 시티플러스 면세점 032-743-5718
- 창주 국제공항 면세점 043-213-3500
- 대전 신우 면세점 대전 유성구 온천로 33
- 수원 앙코르 면세점 경기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32
- 정주 중원 면세점 정주 중원시 상당구 충청대로 114

